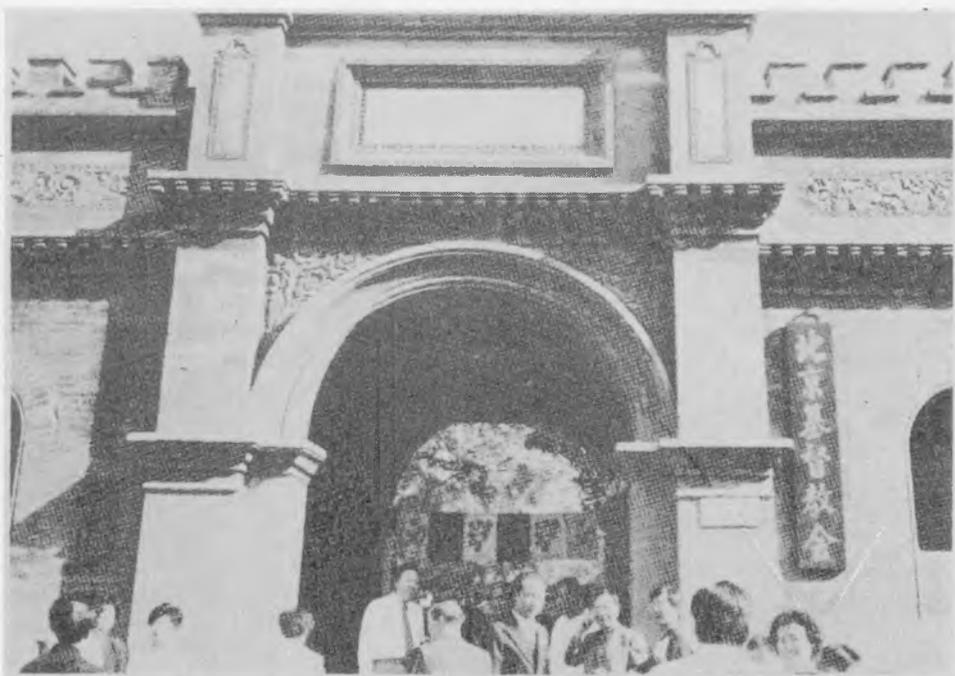


중국을 주께로

제 10 호
1991. 1/2

你們要去，使萬民作我的門徒，奉父子聖靈的名，給他們施洗。凡我所吩咐你們的，都教訓他們遵守。我就常與你們同在，直到世界的末了（馬太福音 28 章 19~20 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 장 19~20 절)



(北京基督教會의 최근 모습)

中國語文宣教會

차 례

· 선교일언	
헌 신/김용배	/ 1
· 말씀묵상	
신명기 11장 11~12절/ 번역부	/ 2
· 정기세미나	
중국교회의 本色化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방지일 목사	/ 4
중국에 있어서의 전문인 선교의 가능성/ 신현확	/ 7
· 중국어문선교회 각 부서 활동보고	/ 9
· 중국기독교인물소전	
秀才였던 목사/ 연구부	/10
· 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연구부	/12
· 중국어 성경공부	
예수는 생명의 양식/ 교육부	/16
· 대륙성도간증	
어느곳에도 집이 없지만 모든 곳이 집이어라/ 번역부	/18
· 우리는 이렇게 일합니다	
중국을 주께로/ 이동화	/22
·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26
· 중국대륙 선교보고/ 왕충성	/30
· 신앙 간증	
중국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자근중	/32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박지화	/35
·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 활동 상황	/38
· 중국어로 찬양을/ 頌讚全能上帝	/39
· 기도편지	/40
· 회원동정	/41
· 알 림	/42

헌 신



김 용 배(본 선교회 간사 부총무)

요즈음 우리들은 받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고 주는 것에 대하여는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나는 이 글에서 드리는 일 중의 하나인 "헌신"에 대해 말하고 싶다. 빌립보서 3장 12~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헌신에 대하여 "하나의 목표에 모든 것을 바치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번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려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참석하였고, 참석한 선수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오직 메달을 따기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강훈련을 받으며 준비했다. 이 운동선수들 처럼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왔으며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왔는가? 때로 사람에게 직업이 왜 필요한가? 라고 물으면 돈벌어 잘 살기 위함이라고 곧잘 말한다. 그럼 왜 사는가?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확실한 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바울은 헌신된 후 뚜렷한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첫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주인(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종"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보낸 "대사"로서 삶을 온전히 드렸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온전히 드러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의 두번째 목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데에 모든 생애를 다 바쳤다.

우리는 방한 중국교포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했고 실제적인 사역을 했다. 지금은 더욱 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지도자훈련코스(L.T.C)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훈련 중에 있다. 이것도 하나의 헌신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헌신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이유는 바로 선교할 때 따르는 댓가 때문이다. 바울은 선교도 많이 했지만 그 댓가도 많이 지불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굶고, 심지어 삶의 희망까지 끊어질 뻔 했던 일 등의 어려움이 뒤따랐다.

우리가 중공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일, 힘든 언어훈련, 철야기도, 각 부별 모임 등 많은 개인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특히 공산국가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우리로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에 드러나지 않게 하다 보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일을 해도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은 없다. 우리가 하는 선교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신 것처럼 헌신되어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려운 일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를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가 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도성이 망하기만 바라고 있었다. 박영쿨이 뜨거운 햇볕을 가리워 주었을 때 그의 관심사는 니느웨의 많은 영혼이 아니라 자기를 가리우는 박영쿨에 있었다. 그의 헌신은 자기 자신이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떠한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의 달려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데 있었다. 다시 요나를 생각해 보자.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고 오직 관심사는 자기를 덮어주는 박영쿨에만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14억의 중국 영혼인가? 아니면 박영쿨에 있는가? ☺

말씀묵상

「너희가 건너가서 기업으로 얻으려는 그 땅은 바로 산과 계곡이 있고, 빗물로 촉촉히 젖은 땅이다. 그 땅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곳으로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눈이 지키시는 곳이다.」 (신명기 11장11~12절)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새로운 한 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장차 우리들의 앞 길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터 온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능히 안위할 수 있으며, 능히 우리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 「여호와 네 하나님은 --- 돌보시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지켜 보신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 있으며,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들의 공급의 원천이 되신다면 어떤 일도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폭염이나 가뭄이라도,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그 강을 마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 땅은 산과 계곡이 있는 곳이 지 순탄한 평원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의 삶이 단조롭고 평탄하기만 하다면 그 얼마나 의미가 없는 삶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산과 계곡이 필요합니다. 산이 있으므로 빗물은 계곡에 모이게 되고 그 결과 비옥하게 되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산의 의미는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험난함은 알고 보면 우리가 복된 단비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빨리 나가도록 재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이 꺼려하는 산의 험난함은 도리어 우리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산골짜기의 고난을 싫어하고, 평지의 편안을 좋아한 결과, 서리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산 밑의 평지에 쓰러져 죽게 되어 황금색 모래에 매장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산은 그 백성들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로부터 당신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우리들로 하여금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로 가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새해는 즐겁고 복된 새해인 것입니다.

단어 설명

- 乃是 nǎishì (바로)즉 ~이다. 곧 ~이다
- 滋潤 zīrùn ① 젖어있다. 촉촉하다 ② 촉촉하게 하다. 축이다. 적시다
- 眷顧 juàngù 돌봐준다. 관심을 갖다. 애고(愛顧)하다
- 遭遇 zāoyù 조우하다. 만나다. 부닥치다 처지. 경우
- 變遷 biànqiān 변화하다. 변천하다
- 安慰 ānwèi ① 마음이 편하다 ② 위로하다
- 激勵 jīlì 격려하다
- 接濟 jiējì 원조하다. 돕다. 구제하다. 보내다. 도움을 필요로 하다
- 仰賴 yǎnglài 부탁하다. 의뢰하다
- 供給 gōngjǐ 공급(하다). 급여(하다)
- 光滑 guānghuá ① 매끄럽다. 반질반질하다 ② 아무것도 없다
- 平淡 píngdàn (사물이나 글이)평범하다 무미건조하다. 수수하다
- 甘霖 gānlín (가뭄끝에 내리는) 단비
- 厭煩 yànfán 귀찮아하다. 싫어하다
- 貪戀 tānliàn 연연해하다. 몹시 그리워하다
- 倒斃 dǎobì 넘어져 죽다.
- 埋葬 máizàng 매장하다. 묻다.
- 保障 bǎozhàng ① 보장하다. 보증하다. ② 보장. 보증. 지키는 힘.
- 伸出 shēnchū 밖으로 내어 뻗다. 퍼다. 펼치다.
- 扶持 fúchí ① 부축하다. ② 돕다.
- 快樂 kuàilè 즐겁다. 유쾌하다.
- 乏味 fáwèi 맛이 없다. 무미건조하다.

(原文：「荒漠甘泉」중에서)

一月一日

「你們要過去得為業的那地，乃是有山、有谷、雨水滋潤之地。是耶和華你神所眷顧的，從歲首到年終，耶和華你神的眼目時常眷顧那地。」（申十一章十一至十二節）

親愛的讀者，今天我們站在一個新的境界上，前途茫然。擺在我們前面的是一個新年，等待我們經過。誰也不能預知在將來的路程中有甚麼遭遇、甚麼變遷、甚麼需要。可是在這裏有一段從父神那裏來的信息，頂能安慰我們，頂能激勵我們——「耶和華你神……眷顧……從歲首到年終，耶和華你神的眼目時常眷顧那地。」

我們所有的接濟都可仰賴於神，祂那裏有不乾的活泉、永流的江河。祂那裏有恩典的誓約。如果祂作我們供給的源頭，就甚麼都不能使我們失望。沒有熱、沒有旱，能叫那道「使神的城歡喜」（詩四十六篇四節）的河乾涸。

我們要得的那地乃是有山有谷之地。不是一片光滑的平原。若是我們前面的生活只是平而又光，何等乏味！我們需要山和谷。山使雨水匯集谷中，使地肥沃多結果子。山對於我們的生命也是這樣。山一般的難處原是催趕我們到施恩座前去得有福的甘霖的；我們所厭煩的山境，反使我們得福。多少人因為厭煩山谷的辛苦，貪戀平地的舒服，因此受風霜的摧殘，倒斃在山下的平地，埋葬在黃金色的沙中。神的山是祂子民的保障！我們不能說前面沒有損失、憂慮、試煉。我們只能信靠。父神必從今日起伸出祂大能的手來扶持我們走當走的路程。所以我們的新年是一個快樂、有福的新年！——選



중국교회의 本色化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방 지 일 목사 (본 선교회 고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와 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민수기 13:1~3)

I. 머리말

모세는 여호와와 의 지시에 의하여 민의에 의한 정탐군을 파견하였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신1:22) 실로 여호와와 의 지시는 저들이 이렇게 요구한 데 대한 허락이었다.

정탐군의 임무는 군사상의 문제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지리, 풍습, 사회상, 인종, 생산품 등에 대해 세밀하게 알아오는 것이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을 선교하고자 하는 우리는 먼저 중국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익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근대 100년은 排外政策으로 일관되었는데 그것을 개관해보면 25년씩 4번 배외정책의 대상국이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1880년-1900년까지는 排露政策으로 러시아가 旅順, 大連을 점령하자 그들을 반대하는 정책을 폈다. 1900-1925년까지는 排英政策으로 영국을 반대했는데 아편전쟁으로 홍콩(香港)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1930년-1950년까지는 排日政策으로, 일본에 의해 만주가 먹히고 본토까지 침략을 당하자 그들을 반대하는 정책을 폈다. 1945년에 일본이 패하고 1949년 모택동에 의한 공산당정권이

들어오자 그 이후 1970년까지는 排美政策으로 미국을 미워하였다. 그들은 미국을 표기할 때에도 "美國"이라고 쓰지않고 "美"이라고 썼으며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비웃었고 심지어 잠자던 어린아이까지도 "네 원수가 누구냐?" 물으면 "미국"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排美政策을 강화했다.

100여년 동안의 排外政策을 배경으로 한 중국은 종교를 파멸시켰다. 기독교인이라 하여 말에 끌려다니다 죽거나 혹은 두 편의 말에 매달린 채 찢겨 죽은 사람들이 허다했고, 교회 건물은 학교나 사무실, 마굿간으로 쓰여지기도 하였다. 경제적 자구책의 일환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구와 조약을 맺을 때마다 宣敎自由라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는 기독교에 대한 나쁜 편견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였다. 중국 개방이후 기독교에 대해 다소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종교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807년, 우리나라보다 80년 앞서 복음이 들어갔다. 중국교회역사에서 외국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인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에서 자라난 「본색교회」(토착교회)에 대해서 살펴 보자. 이 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삼자(三自)원칙에 부합될 뿐 아니라 중국선교를 하

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국교회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래 서구교회가 중국선교를 할 때 식민주의적 선교의 탈을 떨쳐버리지 못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더욱 더 그러하다.

II. 본색교회(本色教會)를 만든 사람들

1. 왕명도(王明道)

왕명도는 북방사람으로 중국의 토착교회 형성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서양선교사들과도 친분을 돈독히 하면서 명실공히 自治, 自養, 自傳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

그 교회는 서양선교사의 지도나 원조 등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독립교회라고 불리워지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도 철저히 독립을 지켰다.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일본 당국이 그를 회유하려고 했을 때도 이 원칙을 고수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적화된 이후에 주는래가 그를 회유하려고 했으나 정종(政宗)분리 원칙 하에서 복음을 지켜나갔다. 그는 지금도 상해에 생존해 있다. 왕명도는 기독교의 사명이 오직 영혼 구원에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란 하나님이 구속(救贖)한 영원한 나라로서 지상의 사악하고 부패된 나라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또 천국을 건립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면서 사회개조나 제도개혁을 반대하며 오직 영혼구원이 영원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곧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 내적인 생명을 철저히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송상절(宋尚節)

송상절은 남방사람으로 미국에서 화학을 공부했으나 공부하던 것을 버리고 중국에 와서 부흥운동을 하였다. 1925년 석미옥(石美玉) 등이 베델 전도단을 설립하였는데, 1931년에 현대 중국 기독교계에 부흥 전도자인 송상절이 이 단체에 가입하여 전도단의 활동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다. 송상절의 사역의 특이한 모습은 새로운 결신자들로 전도대를 조직하게 하는 일이었다. 대체

로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었다.

<라이얼>씨는 송상절을 가리켜 “중국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였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당신의 영향권을 전 동남아 지역으로 넓히셨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지금까지도 그 열매를 볼 수 있다. 즉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내지선교부(C. I. M)의 후신인 해외선교부 선교사들은 오늘날에도 송상절의 순회 전도 때 전도받고 회개하였다는 중국신자들을 많이 만나곤 한다. 또한 기도와 전도에 열중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것처럼 부흥의 불길이 붙게 된 것도 과거에 있었던 그의 집회의 결과라고 회고하고 있다.

성경말씀은 그의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12장씩 읽었고 하나님의 교훈에 온마음을 쏟았다. 그리고 신문 외에는 거의 다른 책을 읽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설교는 성경적이며 균형이 잡혀 있었고 십자가가 중심이었다.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3. 경전웅(敬奠龢)

경전웅은 근검절약, 주님의 재림을 초점으로 해서 1921년 「예수가정」이라는 중국인 자립교회를 태안(泰安), 마장(馬莊)에서 창립하였다. 이 「예수가정」은 교회로서의 조직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모든 경제, 신앙 등의 생활을 함께 했다. 이들은 기도를 할 때 시종일관 통성기도로 하며, 찬송가도 시편과 말씀을 중국가락에 맞추어 찬송했다. 그들은 생업에 의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모든 작업이 분업화되어 공동의 일과표에 의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정을 주님께 다 바친다는 슬로건으로 「예수가정」에 들어와 한 식구가 되어 공동작업, 공동교육, 고행주의로 惡衣惡食(안입고, 안먹기) 하면서 남자가 분리되어 생활하다가 부부도 일년에 몇번씩만 합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살아온 저들은 공산화 후에도 자신만만했으나 결국 공산당에 의해 가장(家長)인 경전웅이 살해되고 해산당했다.

4. 워치만 니 (중국어명: 倪柝聲)

워치만 니는 영국에 유학해서 과학을 전공했고, 페니실린 공장으로 성공한 사업가였다. 성경 원어를 보면서 성경을 공부했으며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공부했다. 작은 성경공부 모임으로 시작해서 「기독교 집회소」를 설립하여 1928년 상해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초기에는 小群(3-4명)이 모이다가 점차 발전하여 전국 각지에 예배처를 설립하였다. 그들은 교파를 부정하여 자기자신을 어느 특정교파에 소속시키는 것을 싫어했다. 교회는 하나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지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하며 다형제이어야 한다고 했다. 워치만 니의 특이한 신도 양육법이 기독교 집회소의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1949년에는 국내외 7백여 개의 집회소로 확장되었고 신도가 10만명 이상이 되었으며 경제력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모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30여권의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워트니스 니가 워치만 니의 뒤를 이었고, 한국에도 그 중심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교회관이 없고 예정교리를 부인했다. 성경관, 구원관, 복음관이 확실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중국 인텔리들이 워치만 니를 중심으로 모였기에 공산당이 워치만 니를 처치하려고 계획을 세워, 워치만 니는 결국 “음란죄”의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다.

Ⅲ. 맺 는 말

중국의 자립교회는 서양교회 의존에서 탈피했을 뿐 아니라 원래의 소속 교파에서 탈피하여 자립적 교회를 조직했고, 서양교회의 조직체제를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탈서양화를 지향하였다. 자립교회의 설립자는 탁월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갖고 교회의 관리치리를 가부장(家父長)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중국인들은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 天下의 中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중국은 사실상 군사적으로 전쟁에 승리해본 적이 없으나 외교에는 손해를 본 적이 없는 나라이다.

우리가 중국을 선교하려면 먼저 그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선교가 하향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쉽고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먼 안목으로 살펴보면서 그들의 사상과 문화를 잘 납득하고 이해해야 한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군을 보내어 적을 먼저 알았던 것처럼 중국을 선교하려면 그들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잘 알지 못하고 의욕과 열정만 앞선다면 시행착오만 할 뿐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선교사로 가지 못하더라도 현지 공장이나 학교 등에서 일 하거나 공부하면서 선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받으면서 일을 찾아야 한다. 중국을 선교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교포들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중국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뜻있는 신학생들을 한국에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우리는 중국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를 익혀야 하는데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

經文背誦(성구암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我已經與基督同釘十字架：現在活着的，不再是我。乃是基督在我裏面活着；并且我如今在肉身活着，是因信神的兒子而活。他是愛我，爲我捨己。(加拉太書2:20)

Wǒ yǐjīng yǔ Jīdū tóng dìng shí zì jià,
xiànzài huó zhe de, bú zài shēn wǒ, nǎi
shì Jīdū zài wǒ lǐ miàn huó zhe, bìng qiě
wǒ rú jīn zài ròu shēn huó zhe, shì yīn xìn
Shén de ér zǐ ér huó, tā shì ài wǒ, wèi wǒ
shě jǐ. (Jiālātàishū 2:20)

중국에 있어서의 전문인 선교의 가능성

신 현 확(Eland 해외사업본부장)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행 18: 1-4)

전문인 선교, 자비량선교는 20세기에 새롭게 개발된 것이 아니라 선교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바울의 사역에서 그 첫번째 모범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의 업이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한다. 바울은 안식일을 제외한 시간은 tentmaker로서 장막을 만들었고 안식일은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4절)고 기록되어 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도 동인도 회사의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선교했고, 중국선교의 아버지인 '모리슨'도 통역원으로 일하면서 선교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아직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젤선교회 사역도 tentmaker들에 의해 집단공동체 타운을 형성했다. 진첸도르프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들도 tentmaker였다.

「Profit for Lord」(주님을 위한 이익)라는 책을 읽어 보면 주님을 위해 사업을 하면서 선교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알렌선교사도 의사로서 tentmaker였다. 여기에서 전문인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전통적인 선교사로서는 선교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는 견해이고 좀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접근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아굴라와 업을 같이 하면서 동역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일하는 현장에서 바울이 그들을 복음화하고 제자화했던 예이다.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것

이 생계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역의 터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 전문인 선교를 할 때 현지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선교사들은 자국으로부터 후원해 주는 선교비로만 생활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실제적인 경제적 필요를 몰라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 삶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괴리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교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때 현지에 선교타운을 만들어 놓고 낮에는 타운에서 나와 사역하고 그 나머지 생활은 선교타운에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생활했기에 우리의 생각속에 키 크고, 얼굴이 하얗고 깨끗한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우리와 다르게 생활하는 그들에 대해 우리는 괴리감을 느낄 뿐이었다. 한국에서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렵게 살고 있지만 현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거서 그들에게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본 받아 선교를 할 때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사역하는 tentmaker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라는 직책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진짜 선교하기 위한 것인지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두번째로 전통적 선교사 파송은 재정적으로도 지나친 선교비가 든다. 가장 절약한다고 생각하

고 있는 선교단체인 O.M.F에서도 부부(애기 한명 있는) 선교사에게 1달에 \$2,500을 후원한다. 다른 선교단체에서는 더 많은 선교헌금을 후원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재정을 투자해서 세계를 복음화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본다. 재정면에서도 전문인 선교가 필요하다.

중국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중국 개방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볼 때 중국이 개방하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기가 빠를 지, 늦을 지가 관건일 뿐이다. 그 속도는 환경, 규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 있어서 전문인 선교는 가능성이 무한하다. 서구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한국이 경제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고, 중국은 한국 전문인을 상당히 필요로 할 것이다. 산업과정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하는데 중공업보다는 경공업, 첨단산업의 인력이 필요하다. 컴퓨터의 경우에도 컴퓨터를 만드는 것보다 operater를 필요로 한다.

전문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번째로 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매력이 전문성이라고 본다. 바울이 장막을 만들었을 때 제품의 품질은 우수했을 것이다. 뛰어난 기술 곧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커리큘럼이 자신 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

세번째로 전문인 선교를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직업상, 거룩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네번째는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어, 영어는 필수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중 하나가 "關係"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關係"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화폐경제, 신용경

제인데 사회주의 경제는 고도의 계획경제로 화폐경제를 위축시킨 경제이다. 그들은 낮은 월급과 배급 등으로 화폐를 위축시키고 있다. 통제를 하는 쪽은 불편하지 않으나 통제를 받는 쪽은 실질적인 불편함을 느낀다. 고도의 계획경제 속에서 사는 대부분의 피지배층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關係"이다. 실질적으로 화폐는 오고가지 않지만 재화와 용역은 오고간다. 부탁할 일도 직접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삼자 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關係를 맺게 되는 것을 그들은 더 좋아한다. 그것은 미래에 잠재적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關係"를 이용한다는 것으로 도덕성과 비도덕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나도 비지니스맨으로 중국 여러 곳에 많은 사람들과 關係를 갖고 있고 지난 가을 목적인 바의 사업을 關係의 도움으로 13건이나 성공시켰다. 중국에 온 목적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일(전도)을 해도 크게 간섭을 받지 않고 또 문제가 생겨도 關係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를 볼 때 전문인 선교는 가능성이 있다. 신분에 규제를 받는 지역일 수록 전문인 선교, 자비량 선교는 훨씬 자유로울 수 있고 효과적이다. '반 헤밀턴'이 쓴 'Today's Tentmaker' 에서 tentmaker를 정의하길 "선교지에서 종교적 전문가라기보다는 다른 전문가로서 인식되지만 동기와 헌신에 있어서는 전통적 선교사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문인으로 선교를 할 때 "선교사냐?"고 묻는다면 "아니다"고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인이나?"고 물을 때 당당히 기독교인임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인 선교에서의 딜레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전도자인 전문인 선교사를 의지하게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한다. 성공적인 비지니스맨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능력 중의 하나가 정보화의 능력이다. 선교에 있어서도 情報化의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화에 대한 메커니즘이다.

'선교'를 정의해 보면 선교는 선교사가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선교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선교를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컴퓨터 화일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6개의 화일에

입력해서 filing system을 만들 수 있다.

첫째, 복음 전달자인 "선교사 자신"에 관한 것으로 Q.T, 자아상 확립 등의 file이 필요하다.

둘째, "선교 메시지"로 성경 60구절만 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선교신학, 에큐메니칼, 메시지 자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선교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을 선교하자면 중국철학, 공산주의 연구, 인간자체에 대한 이해, 문화인류학, 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네째, "사역 방법론"으로 T.E.E. (제자훈련)등

이 필요하다.

다섯째, "타문화권 의사소통"으로 기본적인 외국어를 익혀야 한다.

여섯째, "선교 행정"으로 효과적으로 기도편지를 쓰는 법, 교회와 선교단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위와 같이 6개의 화일박스를 분류해서 알고 있어서 나중에 독자적으로 선교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자신을 개발하고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중국어문선교회 각 부서 활동보고

□ 번역부 □

1월 19일(토)부터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다. <종교와 중국전통문화: 宗教與中國傳統文化>를 가지고 내용을 분담하여 번역하고, 함께 모여 오역을 바로 잡고 교정, 운문을 하고있다. 한번에 4시간 이상 앉아서 하는 모임에 모두들 열심히 준비하고, 진지한 학습으로 피곤해 할 줄도 모른다. 이 책 외에도 중간 중간에 <중국어번역집>을 나누어 발제하고, 또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필요하고도 산뜻한 내용의 스타디를 첨가해 가면서 계속 진행할 것이다. 노재은 자매는 서기로서 번역부모임 일지와 스타디한 내용을 정서하는데 그 야무진 필치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고 이민선 자매는 총무로서 모임 연라, 복사업무에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토요일 오후는 선교회 사무실을 시용할 수 없게(L.T.C훈련)되었고, 각자의 시간 사정도 고려하여 월요일 오전으로 모임 시간이 바뀌었다. 번역부원들의 더 많은 참여를 바라며, 다른 회원이라도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

□ 교육부 □

교육부에서는 1월 7일부터 제3차 선교중국어 연수를 개강하여 진행중에 있다. 현재 제4차 선교중국어연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4월 1일 개강할 예정이다. 많은 회원들께 이 선교중국어 연수를 위한 기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계속 선교중국어연수에 사용할 교재를 제작중에 있다.

□ 연구부 □

연구부에서는 '방한중국교포선교에 대한 시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월 4일부터 6일간 부산지역의 선교단체인 에페소선교회가 주관한 "모슬렘과 공산권선교"에 참가하여 연구부의 연구성과를 나누고 공산권선교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두번째 선교자료시리즈로 "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林治平 교수의 논문을 준비중에 있는데 번역이 완료되었다. 또 연구부의 기획사업으로 "中國社會主義時期的宗教問題"라는 중국의 종교정책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가 모아진 책을 번역 중에 있다. 연구부는 조만간에 정규모임을 가질 작정이다. 정규모임이 시작되면 부원들에게 곧 모임소식을 알려드릴 예정이다.

秀才였던 목사

席勝魔

(1835~1896)

山西省 臨汾縣



席勝魔(1835~1896)목사는 원래 아편에 중독되어 실의에 빠졌던 신사로 배외감정에 젖어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가지 심리적인 곡절을 거쳐서 마침내 기독교에 귀의하였고 후에 목사가 되었다. 그는 중국 북방의 산서지역에서 드물게 보는 초기의 이름있는 목사로서, 더욱이 중국인이 스스로 自立, 自傳, 自養의 기초하에 교회를 세우고 발전해가도록 하여 중국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을 세웠다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그 공헌이 탁월하다.

席勝魔는 원래 이름이 席子直으로 산서성 평양부 임분현 서장수 사람으로 席씨는 이 지역의 명문세가였다. 부친과 조부 모두 독서인이었고 의술에 능했으며 근검절약하여 치부하였으며 인근의 주민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았다. 子直에게는 형제가 5인 있었는데 그는 그 중의 넷째였다. 형제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진학하였고, 후에는 과거시험을 보아서 각기 다른 과거시험에 합격하였다. 席子直은 일찍이 열여섯에 秀才에 합격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앞날의 전도가 양양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부모가 연이어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각기 분가하여 독립하였는데 자직은 적잖은 토지를 분배받아 농민을 고용하여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아주 풍부하였다. 게다가 秀才의 직함도 얻어서 그 지역에서는 하나의 위엄있고 숭앙받는 신사이자 지주였으며 문장력도 있어서 항상 사람들의 소송을 도맡아 주었는데 거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서 그의 명성이 인근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때 그의 나이는 30이 채 안 되었다.

명예와 권세를 다 얻었지만 도리어 아내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했고, 이 아픔은 그에게 인생

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는 유·불·도를 차례로 받아들임으로써 살 길과 한 줄기 빛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마음만 상할 뿐 헛수고였다. 또 그는 도교의 장생불사의 방법을 추구하느라 정력을 허비하여 30세의 席子直은 이미 혈기가 다 사라져 버림을 느꼈으며 의지마저 매우 소침하게 되어 걸음으로 보면 마치 중노인과 같았다.

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아편을 흡연하여 기력을 조절하기를 권했다. 그는 아편이 나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자신도 모르게 아편을 피우기 시작하였으며 마음속으로는 「병 때문에 피우는 것이니 병만 좋아지면 곧 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흡연량이 많아지자 중독이 되어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아편중독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종일 일할 생각이 사라지고 주 수입원이었던 소송업무도 부실해지고 맥을 보고 처방을 내리던 의사업무조차 흥미를 잃었으며 경지의 소출관리에도 관심이 없어져서 다재다능하던 사람이 마치 산 송장 꼴이 되었다. 席子直은 아편의 해독을 받아서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앞날의 희망이 완전히 상실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光緒2년(1876) 華北 다섯 성에 큰 가뭄이 발생하자 중국의 선교사들은 산동에서부터 산서에 이르기까지 구제사업을 시작했다. 이전에는 산서가 지역적으로 내륙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사의 출현이 드물었고 교회의 설립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는 구제의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선교사 터너(德治安:Turner)와 데이빗 힐(李修善:David Hill) 두 사람이 光緒4년(1878) 平陽府

에 구호품을 보내었으며 이 일이 기독교복음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전통관념의 영향을 깊이 받아 외세에 대하여 배타적이던 席子直은 이 때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교사의 구호금품 받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줄곧 그들이 산서에 온 목적이 구호라는 미명하에 민정을 살피려는 것이며 기독교사상이 흑세무민하는 사설이라고 여겨서 서양선교사에 대하여 敬而遠之(어떤 것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되 멀리한다)하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光緒5년(1879)에 마칩 과거시험 때가 되자, 山西각지의 수재들이 분분히 성내로 와서 시험을 치렀다. 데이빗 힐 목사도 이 기회를 타서 과거시험장 앞에서 수험생에게 지도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아울러 '眞道の 根源', '正心', '祈禱', '勸善懲惡', '偶像', '아편' 등 6편의 제목으로 글을 현상모집하여 모두 네 명을 뽑았는데 고액의 상금을 주었다. 席子直은 당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상금을 욕심낸 끝에 주최자가 오랑캐이거나 말거나 네 편을 응모, 한 편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써낸 결과 120편의 문장 가운데서 1, 2, 3등은 그가 차지하였다.

席子直이 평양부로 상금을 타러 가는데 마음속에 상금액수가 말대로인지 아닌지 하는 의심과 서양사람과 접촉하여 그 요기에 미혹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났다. 그러나 결과는 데이빗 힐과 만난 후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의구심이 사라지고 友誼가 생겨나 나중에는 데이빗 힐이 席子直을 가정교사로 삼아 四書, 五經 등의 경전을 공부하게 되었다. 席子直은 데이빗 힐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며 관찰한 후에 그의 인격에 감화되어 마칩내 기독교에 귀의하기로 했다.

크리스찬이 된 후의 席子直은 자연히 아편중독에서 벗어나려 했는데 아편을 끊는 일은 마치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큰 싸움이었다. 그는 중독이 심각한 상태여서 약과 침으로 효과를 볼 시기가 이미 지나 칠일째가 되자 밥도 못 먹게 되고 눈물과 콧물이 줄줄 흐르고, 앉아서도 불안해 하며 저녁에는 잠도 못 이루고, 고통중에 몸부림치게 되었다. 아편연기를 몇 모금만 마시면 온몸이 풀어질 것이라는 아편의 유혹이 갈 수록 커져서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다행히도 그의 굳건하고

깊은 신앙의 힘에 의지하여 마칩내 아편중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 때의 경험은 그가 생을 다할 때까지 잊을 수 없었으며 그로 하여금 최악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는 더더욱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였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勝魔」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특별한 전쟁을 기념하였으며 아울러 스스로를 독려코자 하였다.

席勝魔는 데이빗 힐의 인도하에 좋은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나중에 성령의 명령하심 따라 점차 정진하여 마칩내는 교회에서 목양의 길을 걷게 되었다. 光緒11년(1886) 평양촌에서 중국내지선교회의 회장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가 인도하는 목사단체가 정식으로 그를 목사로 안수하여 山西平陽, 洪洞, 太寧 등 세 구역의 교회업무를 책임지게 했는데 그의 목회활동 이래의 업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天招局을 광범위하게 설치하여 경험자의 입장에서 불바다에 빠진 동포에 관심을 쏟았다. 天招局에서는 특별히 환약을 조제하고 거기다 예수그리스도의 신심을 더하여 사람들을 아편중독에서 건져내었는데 효과가 컸으며 수많은 사람을 구했다.

둘째는 토착화된 기독교회를 건립하였다. 그는 수재와 목사의 신분을 겸했고, 중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성경지식도 풍부하였다. 그리하여 양자의 일치에 진력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또 아름답고 신성한 백화시를 많이 작곡 작사하였는데 아무리 불러도 지겹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다.

光緒22년(1896) 2월 19일 席勝魔는 고향 西莊村 中樂園에서 향년 62세로 안식, 허드슨 테일러 II세 사모는 "수재이자 크리스찬이었던 석목사(Pastor Hsi, Confucian Scholar and Christian)"라는 한 권의 책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席勝魔의 사적을 기록하였다. 〚

【출전: 中國基督教人物小傳 上卷】

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 중국교회 역사발전의 관점에서 검토함 —

林 治 平

(연구부 제공)

기독교가 중국에 전해진지는 이미 짧은 세월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가 중국인의 문화나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깊게 파고 들지는 못한 것 같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가지로 얘기되고 있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만약 「토착화」란 측면에서 탐구해 볼 때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본문은 특히 중국교회의 역사발전과정에서 아래의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탐구함으로써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I. 「토착화」와 「관련화」, 「상황화」의 의미

토착화의 본 뜻은 「土生土長(그곳에서 나서 자라다)」이다. 두가지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외래문화와 본토문화가 서로 부딪쳐 이 외래문화가 점점 변질·수용되어 마침내는 그 곳에 뿌리 내리고 본토문화가 되는 과정을 「본토화 과정」이라고 부른다. 기독교를 예로 들어 말하자면, 기독교가 도대체 문화인가 아닌가, 기독교를 문화라 할수 있는가? 라는 논쟁이 야기된다. 물론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문화를 초월한 것이다. 그러나 인류문화현상으로 볼 때, 만약 기독교를 추상적인 이념이나 신앙외적인 면에다 적용시킨다면 사실상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는 일종의 문화가 되며, 필연적으로 문화의 범주 속에 들어가게 된다. 심지어 종교 중의 추상적 이념이나 신앙부분마저도 문화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이런 추상적인 이념이나 신앙도 반드시 실제생활방식이나 문화의 틀속에 넣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사를 통해 중국에 전

래된 종교인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서방문화의 특색을 지니며 중국본토의 습속, 문화와 만나 접촉할 때 많은 문화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토착화」란 바로 외래문화와 본토문화가 접촉할 때 발생하는 문화변천의 과정이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토착화란 바로 두 다른 문화인 A문화가 B문화 속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내리는 과정 또는 그 현상을 말한다. A문화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며, 또 A문화가 모종의 개념적의의를 B문화 속에 접목하고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며, 나아가서는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가 등의 전체의 과정과 그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를 우리는 다 「토착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상술한 토착화의 이해에 근거하여 중국에서의 기독교 토착화의 의의는 바로 기독교사상이 중국문화의 사회체계에서 발을 디딜 곳을 찾고 뿌리내리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서방문화의 외투를 입은 기독교사상이 만약 중국문화의 사회체계에서 순조롭게 전파되려면, 반드시 중국문화의 체계속에 들어가야 하고 중국사회문화와 결합해야 하며 중국문화속에서 관련을 맺고 있는 맥락체계를 찾고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독교는 반드시 중국인이 이해하는 개념체계로 전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인은 기독교가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 그러함에도 서방선교사들은 이것을 꺼리고 있다. 중국적 개념으로 전파한 후의 결과가 최후에는 기독교 자체마저도 없애 버리거나 앎나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다. 만약 토착화의 결과가 기

독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본질자체까지 잃는 결과를 낳는다면,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만약 토착화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인이 기독교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기독교도 중국에서 뿌리내리고 발전해 가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는 토착화의 결과가 기독교가 완전히 중국문화의 일부분이 되어 버려서 기독교의 진의를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토착화는 바로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오거나 중국인에게 접수되는 과정을 말한다. 기독교를 전파(서방이 기독교를 중국에 전파하는)할 때 하나는 중국인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상호 대응이다. 바꾸어 말하면 서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서방인은 반드시 중국인의 문화사회 개념체계를 이해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일치점을 찾아서 기독교를 중국에 전해야 한다. 같은 이치로 중국인의 입장에서 서는, 만약 중국인이 전해진 기독교의 문화사회 개념체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되면 그는 당연히 기독교의 신앙이념과 개념, 의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중국인이거나 서방인이나 사실상 각 민족,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토착화 문제가 있고 기독교가 서방에 전해진 후 역시 토착화의 과정을 거쳤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토착화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중의 한 가지이다.

그러나 「토착화」라는 말은 쉽사리 여러가지 정서적인 작용을 일으킨다. 마치 토착화라는 말이 기독교의 본질을 버리고 중국문화의 일부분이 되려는 것처럼 들린다. 기독교신학이나 護敎學에서 보면 약간의 긴장이 있을 것이다. 토착화의 결과가 기독교의 특색,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일련의 정서작용을 유발한다. 토착화의 문제는 사실상 문화학에서 매우 큰 문제이다. 문화학자 린톤(R. Linton)은 일찍이 문화상의 본토화운동에 대하여 심각하게 분석했는데 다시 월리스(A. Wallace)의 확대 보충과 「이역원」의 분류와 정리를 거쳐서 우리에게 분명한 본토화운동의 유형을 제공하여 우리들이 외래문화와 본토문화를 접촉할 때 발생하는 허다한 반응모형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했다.

중국에서의 기독교의 토착화가 최고로 고조되던 시기는 대략 1920년대 전후로 마침 제1차세계대전 중 민족주의가 최고로 고조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기독교의 토착화의 문제는 찬성쪽이나 반대쪽을 막론하고 두 가지 측면의 고찰에 정서적인 색채가 많이 끼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반대자는 토착화는 기독교가 장차 신앙입장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게 된다고 맹렬히 비난했으며, 찬성자들은 민족주의 정신이 고조될 때 옷소매를 걷어부치고 부합하여 결국 신앙 입장을 잃어버렸다. 이런 상황은 기독교의 중국에서의 토착화 과정을 험난함과 어려움으로 가득차게 했다.

상술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선교학에서는 「관련화」, 「상황화」(contextualization)라는 명사를 만들어냈다. contextual이란 context란 글자에서 변화된 것으로 위씨대사전에 근거하면 그 본뜻은 내용, 목록이나 상하의 문의를 서로 관련되거나 혹은 어떤 事物全貌의 주위환경이나 사실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연관화」, 「상황화」, 「맥락체계」, 「맥락화」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가 중국본위문화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려면 중국문화 가운데서 그 맥락체계를 찾아야 한다.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어떤 개념이 중국에 전달된 후 중국에서는 이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아야만 한다. 만약 한 의미를 다른 의미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때는 비록 같은 개념으로 전달하여도 상대방의 개념체계 안에서 이 개념의 상하문맥이나 그 맥락체계안에서 도리어 또 하나의 확실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 역시 와전이나 곤란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체계안에서 그 관련성과 맥락을 찾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어떤 사상의 의미와 신앙의 함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고로 기독교가 중국본위의 문화를 접촉할 때 반드시 중국문화에서 그 맥락체계를 찾아야만이 쉽게 그 전파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관련화」, 「상황화」, 「맥락화」의 과정으로 칭할 수 있다.

신학이나 호교학의 목적은 바로 종교의 절대순수와 그 본래 의미를 지키는 데 있다. 선교학의

입장에서는 전도자는 자기의 신앙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할까를 위해서 필히 연관화의 원칙을 운용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가장 흥미로운 부분 및 가장 관계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복음신앙의 부분을 발췌하기도 한다. 신학이나 호교학의 각도에서 보면 이 행동이 복음의 정체성을 단순화 하여 신앙이 순정하고 완정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또 여러가지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복음전파자는 비록 더욱 연관화, 상황화, 맥락화를 취함으로써 토착화, 본토화를 추구하려 하나 그 논쟁에 대한 염려는 여전히 피할 수 없다.

II. 서방에서의 기독교 토착화, 연관화, 상황화의 실례

기독교는 서방에서도 역시 토착화, 연관화, 상황화의 과정을 거쳤다. 기독교는 중동의 팔레스타인에서 기원했으며 유대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세기에 외부에 전파되기 시작하여 특히 콘스탄틴대제 이후 로마제국에 자리잡기 시작했고 점차로 서방에 전파되어 서방문화의 근원이란 하나가 되었다. 이른바 서방문화의 삼대근원이란 곧 히브리문화·그리스문화와 로마문화가 하나로 결합된 문화인데 이들은 서로 영향을 끼쳤다. 순수역사와 문화관점에서 보면 히브리문화가 그리스문화와 로마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신학면에서 예컨대 성경의 요한복음, 누가복음, 바울서신 등이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작자가 그리스문화의 영향을 받았던지 혹은 의도했건 안했건간에 그리스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스 토착화의 결과임을 말할 수 있다. 물론 로마문화의 기독교에 대한 영향도 소홀히 여길수 없는 것으로 종교조직이나 성품체계라는 측면에서 특히 그러하다. 우리는 어떤 종교이건 적어도 교의부분과 조직부분의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명히 로마문화는 기독교의 종교조직면에서, 특히 천주교쪽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교의나 조직은 1세기부터 점차 발전되기 시작하여 3,4세기에 이르러 형성되었고 원래는 동방의 유대교 전통에 속하던 기독교를 그 전통에서 벗어나 현재의 서방모델의 기독교로 되게 했다.

기독교는 원래 팔레스타인에서 기원해서 서방에 전해진 후, 약 1천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추상적 신학관념과 신앙이념이 마침내 서방의 생활방식과 개념체계에 적용되었으며,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종교가 되었고, 토착화가 순조롭게 완성되었다. 이 틀잡힌 개념체계는 바로 서방문화의 틀이기도 해서 전달 가능하고 배울 수 있으며, 서방인의 생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더이상 그것이 외래문화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2천년 동안의 서방기독교의 발전은 교의나 조직 및 의식이나 개념이 중요고 비마다 항상 해당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점차로 히브리식의 유대 기독교의 이론과 희랍, 로마 및 이후의 서방의 역사문화가 안착하자 서로 결합이 되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자 도대체 어느 부분이 기독교이고 어느 부분이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이며 서방문화인가를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으로 결국에는 기독교이념이 자연스럽게 서방문화사회의 개념체계에 완전히 융화되고 아울러 밀접한 결합을 이루어 서방문화와 나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서방교회사의 발전과정에서 이를테면 신학사상의 발전, 교회조직의 변화 발전, 각종 전환기 마다의 습속 등이 모두 다 서방기독교세계의 이념과 서방문화습속 개념체계 등과 분리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나타내고 있는 수많은 실례를 찾을 수 있다. 이 결과는 이런 문화체계속에 자라난 사람에게는 이 문화체계에 완전히 동화되어 어떤 문화개념을 견지하려 할 때 동시에 그가 어떤 신앙이념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 신앙이념은 바로 이 문화개념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이 개념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 신앙 이념을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하에서 오랜 세월 뒤에 원래 동방적인 색채가 농후하였던 기독교이념(성경구약은 동방색채가 상당히 짙게 깔

러 있으며 전체 기독교의 감정은 동방색채가 아주 짙게 깔려 있다)이 서방문화사회의 개념체계에 의존, 변화되어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는 아주 일찍이 서방에 전하여졌기 때문에 동방에서 발전되지 않았고, 180여년 전에 다시 서방에서 중국에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 시기의 기독교는 이미 완전히 서방토착화가 되었고 서방문화의 근원이 되었다. 이와같은 서방토착화와 연관화를 거친 후의 기독교는 서방선교사를 통해서 중국에 전해졌고 서방선교사가 자연스럽게 전체 이념을 전하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 기독교의 원형이며 어떤 것이 서방문화가 끼어든 것인지 구분하기도 사실상 쉽지가 않을 것이다. 어떤 문화에 살고 있으면 아주 열심히 전문적인 연구를 거치지 않고는 문화를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선교사나 교회기구가 중국에 전한 것은 당연히 서방토착화 이후의 기독교인데 중국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도대체 서방에서 중국에 전해진 것은 기독교신앙인가 아니면 서방문화인가? 그리고 중국인이 받아들여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신앙인가 아니면 서방문화까지도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중국인이 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이미 서방화된 기독교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중국인이 줄곧 기독교가 서양종교라고 여기고 거절하게 된 주된 원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바로 하나의 외래종교이지 결코

중국고유의 것은 아니라고 여기고 있음은 역대의 반종교운동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러하다. 이것은 「뿌리」의 문제에 까지 파급된다. 사람은 일종의 근원을 찾는 본능이 있는 것 같다. 더욱이 70년대 후에는 이런 현상이 특히 분명하다. 많은 인류학과 문화인류학 학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매우 신비한 것이다. 우리들도 기독교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이처럼 각각 다른 종족과 문화를 만드셨는지, 만약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왜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문화가 발전하도록 허락하셨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생겨난다. 그래서 어떻게 종족문화의 편견을 버리고 각기 다른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시와 예비하심을 찾고 더 나아가서 연관화와 토착화의 복음사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의 선교자들은 마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방교회사의 발전과정에서 그것을 보면 교회는 서방에서 이미 그 토착화의 과정을 이룩했으며 현재의 서방토착화 후의 기독교는 다시 서방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에 전해졌다. 중국기독교 역시 마땅히 이러한 역사의 선례를 따라 토착화의 기회를 주어서 서방에서의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의 「기독교」로 뿌리내리고 발전하여 진정한 중국의 기독교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방한중국교포를 위한 복음전도단 가입 안내

동역자 여러분께 문안 드립니다.

목자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14억의 영혼들, 그들은 이미 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건만 추수하는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물려오는 중국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동참할 분을 찾습니다.

이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마다 진행중인 지도자 훈련코스(L.T.C)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물질로, 신앙서적 제공 등 여러가지 모양으로 봉사할 분야가 있으시면 역시 복음전도단에 가입하여 추수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선교회로 보내 주십시오)

예수는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6장 25절~51절)

(교육부 제공)

바다의 건너 편에서 예수를 찾아내자, 그들은 “선생님, 당신은 언제 이곳에 오셨나이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저 부패할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지속할 음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곧 인자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다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가 보낸 자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이 또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이적을 행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보고서 당신을 믿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성경에는 ‘그가 하늘에서 음식을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은 결코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곧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주여, 이 양식을 늘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반드시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미 나를 보았으나 여전히 믿지 않는다 하였다. 무릇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

준 사람은 모두 내게 오게 될 것이다. 내게로 오는 자들은 내가 절대로 그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부터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실행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곧 나로 하여금 그가 나에게 보내준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날에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지막날에 내가 그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몰래 수군거리며 이르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는 지금 어찌하여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서로 수군대지 말아라. 만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사람을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을 것이다. 내게로 오는 자들은 마지막날에 내가 그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겠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이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역시 죽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서 죽지 않게 한다. 나는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주는 양식은 곧 나의 몸이니 세상사람의 생명을 위해 주는 것이다.

단어 해설

告訴 gàosu	알리다. 말하다.
乃是 nǎishì	즉(바로)...이다. 곧...이다.
壞 huài	① 나쁘다 ② 악하다 ③ 상하다. 고장나다. ④ 나쁘게 하다. 망치다.
賜 cì	① 주다. 하사하다. ② (상으로)준 것. 하사품 ③ 은혜. 혜택
印證 yìnzhèng	검증(하다). 실증. 인치다.
差 chāi	심부름꾼. 파견하다.
祖宗 zǔzōng	선조. 조상
糧 liáng	① 양식. 식량. 곡물 ② 식품.
降下 jiàngxià	내리다. 떨어지다. 강하하다.
渴 kě	① 목타다 ② 절실하다. 간절하다.
已經 yǐjīng	이미. 벌써
必 bì	① 반드시. 꼭. 틀림없이 ② 반드시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
丟棄 diūqì	내던지다. 버리다. 포기하다.
意思 yìsi	① 의사. 생각. 의견. 심정. ② 뜻. 의미. ③ 친밀한 정. 감사의 표시.
失落 shīluò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復活 fùhuó	부활(하다). 소생(하다)
並且 bìngqiě	① 또한. 그리고 ② 더욱이. 그 위에
議論 yìlùn	의논하다. 비평하다. 알가알부하다.
豈 qǐ	어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 ...이란 말인가.
如今 rújīn	지금. 이제. 오늘날.
吸引 xīyǐn	흡인하다. 빨아 당기다. 끌다.
蒙 méng	① 덮다. (덮어)쓰다. ② 퍼다. 바르다. ③ 받다. 입다. ④ 무지(無知). 몽매.
看見 kànjiàn	보다. 보이다. 눈에 띄다.

(原文)

²⁵ 既在海那边找着了, 就对他说了: “拉比, 是几时到这里来的?”²⁶ 耶稣回答说: “我实实在在的告诉你们, 你们找我, 并不是因见了神迹, 乃是因吃饼得饱.”²⁷ 不要为那必坏的食物劳力, 要为那存到永生的食物劳力, 就是人子要赐给你们的; 因为人子是父神所印证的.”²⁸ 众人问他说: “我们当行什么, 才算作神的工呢?”²⁹ 耶稣回答说: “信神所差来的, 这就是作神的工.”³⁰ 他们又说: “你行什么神迹, 叫我们看见就信你; 你到底作什么事呢?”³¹ 我们的祖宗在旷野吃过吗哪, 如经上写着说: ‘他从天上赐下粮来给他们吃.’³² 耶稣说: “我实实在在的告诉你们, 那从天上来的粮不是摩西赐给你们的, 乃是我父将天上来的真粮赐给你们。”³³ 因为神的粮, 就是那从天上降下来, 赐生命给世界的。”

³⁴ 他们说: “主啊, 常将这粮赐给我们.”³⁵ 耶稣说: “我就是生命的粮. 到我这里来的, 必定不饿; 信我的, 永远不渴.”³⁶ 只是我对你们说过, 你们已经看见我, 还是不信.³⁷ 凡父所赐给我的人, 必到我这里来; 到我这里来的, 我总不丢弃他.”³⁸ 因为我从天上降下来, 不是要按自己的意思行, 乃是要按那差我来者的意思行.³⁹ 差我来者的意思, 就是他所赐给我的, 叫我一个也不失落, 在末日却叫他复活.”⁴⁰ 因为我父的意思是叫一切见子而信的人得永生, 并且在末日我要叫他复活.”

“犹太人因为耶稣说 ‘我是从天上降下来的粮,’ 就私下议论他.”⁴² 说: “这不是约瑟的儿子耶稣吗? 他的父母我们岂不认得吗? 他如今怎么说: ‘我是从天上降下来的’ 呢?”⁴³ 耶稣回答说: “你们不要大家议论.”⁴⁴ 若不是差我来的父吸引人, 就没有能到我这里来的; 到我这里来的, 在末日我要叫他复活.”⁴⁵ 在先知书上写着说: ‘他们都要蒙神的教训.’ 凡听见父之教训又学习的, 就到我这里来.”⁴⁶ 这不是说, 有人看见过父; 惟独从神来的, 他看见过父.”⁴⁷ 我实实在在的告诉你们, 信的人有永生.”⁴⁸ 我就是生命的粮.”⁴⁹ 你们的祖宗在旷野吃过吗哪, 还是死了.”⁵⁰ 这是从天上降下来的粮, 叫人吃了就不死.”⁵¹ 我是从天上降下来生命的粮; 人若吃这粮, 就必永远活着. 我所要赐的粮, 就是我的肉, 为世人之生命所赐的.”

어느곳에도 집이 없지만 모든 곳이 집이어라

여행전도자가 눈물을 흘리며 씌부린 기록

田 秀 雲

(번역부 제공)

여행 전도자의 간증 :

이 글은 가정교회로 파송되어, 사방으로 다니면서 전도한 여행전도자의 간증이다.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한 여행전도자의 탄생과 훈련, 전도생활에 대해 간접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젊고 충동적이고 부르심을 받음에 있어 분명하고도 확고했다. 이러한 점이 그들을 장기간의 고난으로 연단시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였다. 그녀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을 마치 낫가에서 부르셨던 것 같이 그들을 불렀고, 그들의 순종과 따름은 20세기 선교사의 가장 눈물겹고도 찬양할 만한 일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나는 공산당 간부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농촌 지역이라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오전 수업만 있었으므로, 오후 반나절은 어머니를 도와 밭에 가서 일해야 했다. 그 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당시는 문화대혁명이 막 시작되던 시기라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에 뜻이 없었다. 어쩌다가 한 두명, 학과공부에 진지한 학생들이 전입을 해도 모든 반에서 이들을 배척하였다. 지식분자란 그 당시에 '냄새나는 놈' 이라고 멸시를 받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혼자 도시에서 근무했고 우리 가족은 농촌에 남아 있었는데, 생산량의 통괄납부는 고생이 되더라도 성취해야 하는 목표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규정된 생산량을 올려야 했고, 그렇지 못하면 대자보에 붙여져 비판을 받았다. 그 당시 정치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늘 지위와 권력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이면 투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 멀리 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뒤 나는 다시 친지의 도움을 얻어 고등기술 학교에 들어갔다.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아

야 되겠다고 뜻을 정했다. 전교에는 두 학급 밖에 없었고 한 반은 70명이었다. 그리고 전교에서 여학생은 10명 밖에 되지 않았다. 첫 해에 나는 전교 수석을 차지했으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고 아무래도 인생이 덧없다고 느껴졌다. 일생토록 고생하고, 바쁘게 일하다가 마주치게 되는 것이 공허라고 생각되자, 남몰래 마음속으로 결혼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굳혔고, 다만 부모님을 잘 봉양하여 일생을 마치기를 바랐다.

이때 시골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어머니도 다른 사람의 인도하에 교회에 참석하였다. 이때부터 어머니는 계속 내게 교회에 갈 것을 권하여 나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가보았다. 당시 시골사람들은 생활이 비록 곤란해도 옷을 차려 입는데는 꽤들 신경을 썼는데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옷차림새는 누추하여 나는 그런 것을 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한 번은, 아버지가 10여일 출장으로 집을 비웠을 때 어머니는 기회를 타서 한 자매를 우리 집에 머물게 하여 나를 믿음으로 돌려 보고자 했다. 나는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원치 않았다. 할 수 없이 매일 그 자매를 따라 시

편을 읽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날 그 자매와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쏟아 부어진 것이다. 내 마음속은 주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게끔 도와주고 싶었다. 이때부터 머릿속엔 온통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찼다. 결국은 학교학업이 견딜 수 없이 단조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학교를 자퇴하고 전시간 전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아버지는 성경을 다 불태워 버리겠다고 할 정도였다.

82년 교회는 나를 四川으로 파견하여 전도하게 했다.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떠오르는 것은 「자기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다. 마음은 순종하기로 결심했으나 한편으론 가지 않게 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적고 내 자신은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여 「너희의 이같은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지 네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더이상 변명을 할 수 없어 아버지께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집을 떠났다.

四川에 도착한 뒤, 우리들은 그곳의 형세가 아주 긴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통제가 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들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집으로 온 지 이틀도 안 되어 공안당국에서 찾아 왔고, 이후로 끊임없이 수사가 계속되었기에 우리들은 집을 떠나 여행전도자로서의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각성(省)과 마을을 순회하며 전도하는 걸음을 떼게 되었다.

고향의 교회는 해방초기에 몇 명의 노르웨이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시작하여 결실을 맺은 교회였다. 문혁시기에 교회는 가장 암흑기에 처하여 있었고, 그때 주를 믿던 신도들은 대부분이 일흔, 여든 살이 넘어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이 중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실로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 복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게

되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이 여기서 중단되거나 없을까 조바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 이어서 그들이 목도하게 된 것은 문혁후기에 대부흥이 끊임없이 일어나 한 무리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교인수는 천여명을 헤아렸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떡을 먹을 것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 하였고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곧 이어서 핍박도 있었다. 82년 정치운동으로서 범죄자를 공격하던 창끝이 가정교회로 향하였다. 가정교회의 네 명의 지도자들이 '呼滅派'라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모두 체포되었다. 갑작스레 교회의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남은 것은, 처음으로 파견되어 나가 복음을 전했던 우리 젊은 자매들 뿐이었다. 우리는 아무 데도 의지할 곳이 없었고 다만 끊임없이 끊어엮으려 눈물 흘리며 금식기도를 할 뿐이었다. 어떤 때는 나홀씩 이어서 금식하기도 했다. 일백여일 후에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석방시켰다. 그 사이에 몇 명의 자매들은 본래는 교회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전도인들이 체포되자 일어나 담대하게 설교를 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 일을 겪고나서 우리들은 한시바삐 형제자매들을 훈련시켜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양떼는 많은데 목자가 없고 전도자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소리가 드높았다. 그리하여 적극적으로 훈련반을 계획, 진행하였다. 훈련반은 네 명의 형제자매가 과정을 분담하였으므로 부담이 매우 컸다. 대학기에 30명을 훈련시킨다는 목표였는데, 첫학기에 한꺼번에 80명이 와서 훈련기간은 한 주에서 두주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식량부족이 큰 문제여서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금식기도를 요청하였고, 식량이 있을 때면 훈련반은 계속되었고, 양식이 없으면 멈출 수 밖에 없었다.

훈련반이 직면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공안당국의 수사였다. 한번은 우리들이 모임을 갖고 있을 때 공안국에 발각되어 길목이 모두 에워싸졌다. 신도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한 자매가 늦게 달아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하여 도망가야 할 길을 알려 주었다. 또 한 형제는 붙잡혀 나무 위에 묶여 있었는데 그가 기도하자 곧 10여세 된 몇 명의 어린 자매들이 돌아와

서 그를 구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여 밭으로 뛰어 들었는데 추운 겨울이어서 밭에는 눈이 쌓여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라 동사하지 않았다. 다른 몇 명의 자매들은 인채도구를 풀더미 속에다 감추었는데 공안당국이 예수를 믿는 전 가정을 수사했는데도 그 가정만은 빠뜨려 한 사람도 붙잡히지 않았다. 체포된 몇 명의 신도들은 십여일 간의 심문을 받고서 풀려났다.

82년, 83년 핍박이 심하였던 그 시기에 우리 교회는 모두 15명이 전일제로 봉사했다. 84년 다시 신학반을 개설하여 모두 6학기를 실행했는데 매학기 평균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였고, 우리들은 그들이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여 그들을 각지로 파송하였다. 신학반을 거쳐 파송되어 나간 여행전도자의 수는 거의 4백여명이었다. 보기에는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으나 각 성과 현으로 나뉘어지므로 너무나 부족한 숫자였다.

그들은 농촌이나 산간지방으로 파송되어 개척하며 전도하였다. 그곳 주민들의 생활 문화수준은 낮았기 때문에 심오한 이론을 말할 수가 없고 전도자들은 반드시 충만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언제나 성령충만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개척 전도를 하는 방법은, 한 지방에 도착하면 먼저 그곳에 이전에 주님을 믿었던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단기간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공부하고, 그들로 성령충만하게 하여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책임을 갖게 하고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 뒤에 집회소를 세웠다.

농촌이나 산간지방에서의 전도는 많은 고생을 감내해야 하는데, 대부분 산촌의 생활은 곤궁하여 한차레 식사하고 나면 다음 먹을 양식은 없었다.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감자를 썰어서 먹거나 생덩쿨포도를 삶아 먹었다. 우리들이 처음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종종 밥을 얻어먹으려는가 하여 우리를 받아 들이지 않으려 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이라 누군가가 와서 양식을 나누게 될까봐 두려워 했던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감동시켜

자연스럽게 우리들을 받아들여게끔 해야 했다.

두 명의 자매는 하남(河南)과 내몽고(內蒙古) 등지에서 여행전도를 했는데 오랫동안 기름 반죽 빵만 먹어 소화가 되지 않아 위장을 버리기도 했다. 전도자들이 어느 곳에 도착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밥을 먹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한번은 두 명의 자매가 먼 산간벽촌에 갔는데 부근에 인가라고는 단 한 채 뿐이었다. 주인은 이들을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들은 주인에게 우리는 여기서 밥을 먹지 않겠으니 우리를 밖으로 내쫓아 동사하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을 받아 주었다. 그들은 주인이 식사할 때를 타서 금식기도를 했고, 그들이 식사를 다하고 나면 그들에게 복음에 관해 이야기 했다. 사흘 후 성령은 그 주인의 전가족을 감동시켜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고, 구주를 영접하게 하였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들이 식사를 않겠다면 우리들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우리들은 길을 재촉했고, 사람들이 식사를 다 하면 우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상황하에서 여행전도자들이 굶주림을 참고 허기에 시달리면서 한 마을 한 마을을 다닌 것은 다름 아닌 복음, 기쁜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공안당국의 핍박 때문에 우리는 일찌기 호적이 없어졌으며, 신분증명서도 없었다. 돌아가기만 하면 체포될 것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다. 다른 고장으로 갈 때에도 비행기를 탈 수 없어 몇날 며칠이고 기차를 타고 가야 했다. 출발할 때는 언제나 전대에 며칠 분의 식량과 편도차비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한 고장에 도착하여 복음사역이 성과를 거두어 집회거점을 세워 신도들이 공급해 주어야만이 그때서야 돌아올 수 있었다. 남은 돈은 교회에 도착하면 교회 훈련원 양성의 비용으로 드려졌고, 다음번 출발할 때 전대에는 여전히 며칠 분의 식량과 편도차비 뿐이었다.

두명의 자매가 서장(西藏)쪽으로 파송되었는데 반 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 우리들은 모두 마음에 조바심을 내며 무슨 일이 난것이라 생각하였다. 뒤에 그들이 들어오고 나서야 그들이 돌아올

여비가 없어,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경비를 마련하고자야 비로소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일찍이 세 명의 형제는 길을 가다가 한밤이 되었는데 인가를 찾지 못하여 노숙을 하다가 결국 동사하기도 했다. 우리는 때로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하면 빈 들판에서 고구마를 파서 먹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날이 아직 얼마나 더 지속될 지 모르나, 아직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실로 안타깝고 조급해진다. 더욱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 추수밭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어들이기를 간절히 원한다. ✞

〈中國與教會 64期(88/3-4) 중에서〉

간사들의 Q.T 노트에서

*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증인되기 위한 온갖 준비를 다하면서, 오늘도 증인으로서 살겠다는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 은과 금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는 명령과 이를 구체화시키는 부축(후속지원)이다. 이 원리를 우리의 중국선교사역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곧 중국의 영혼들이 영적 불구상태에서 놓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것이다.

* 사도들은 돈의 유혹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회도 역시 그러하다.

* 주여,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망각하고 여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내 자신이 바로 설 때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선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와 같이 복음의 지체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 사울이 눈이 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듯이 오늘 나에게도 이같이 세상에 대하여 눈이 멀고 먹지도 않는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오 주여, 아침마다 갖는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매일 매일 철저히 깨지고 무너지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 주님의 일이 언제나 순풍에 돛단 배와 같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인하여 방해받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해요소는 외부적인 요인에서보다는 내 자신에게서, 또는 한 공동체의 가까운 구성원 사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오히려 이러한 방해의 사건들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성숙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 결국 이방인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듯이.

*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된 뒤에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기도와 응답의 관계에 대해서 따로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오 주여,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응답된 뒤에 의아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글은 「빛과 소금」(두란노서원) 91년 1월호에 실렸던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

중국현지교회 섬기는 선교지원단체
-중국어문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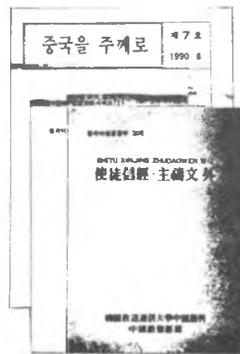
중국선교 위한 본격 '훈련의 장'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미전도 지역인 동시에 복음의 황금어장이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서구교회가 인정하는 사실로서 다음의 몇 가지 관련 통계숫자만 보더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작년 7월에 실시된 중국인 구센서스의 중간집계에 의하면 중국의 인구가 14억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인구를 줄잡아 54억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세계 인구의 30퍼센트에 육박하는 엄청난 숫자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목자 없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14억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은 감히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교회의 부흥을 들 수 있다. 홍콩의 중국교회연구소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1949년 공산화 당시 70만이었던 중국의 교인수는 공산치하에서 40년이 지난 현재 무려 70배가 넘는 5천 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중국은 격변기에 놓여 있다. 지금 중국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공산주의에 회의의를 느끼고 새로운 진리를 찾고



중국어문선교회에서 발간한 선교책자들.

있다. 그러나 개방정책에 편승하여 고개를 들고 있는 타락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른바 '신념의 진공상태'에 처해 있는 이때를 우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다면 필경은 그 자리에 물질주의나 쾌락주의 혹은 미신이나 이단이 들어 찰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와서도 와달라"고 하는 중국백성들의 절박한 손짓임에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실태를 살펴보면 다소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대체로 중국선교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국어훈련의 부족,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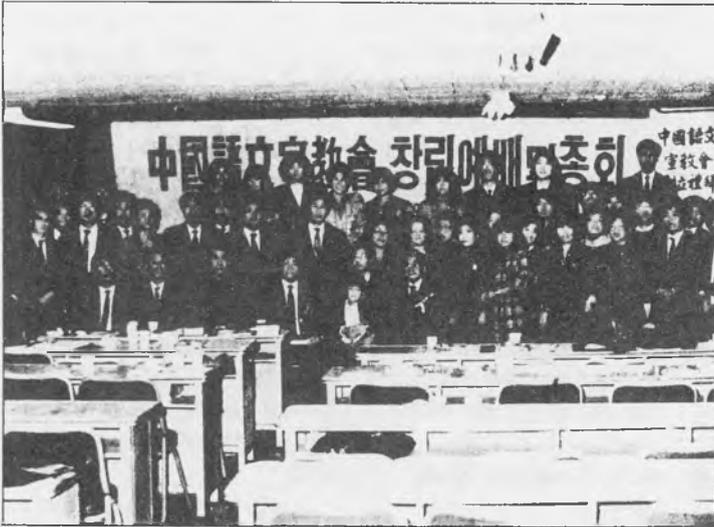
의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 선교정보자료의 부족, 중국교회사에 대한 이해 부족, 중국선교전략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부족, 중국선교를 위한 전문적 선교훈련의 부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방치된다면, 장차 중국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질은 즉시라도 모금이 가능하지만 일꾼은 1~2년 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 아래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초교파적·복음적 선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한 시도로서 먼저 중국학을 전공한 형제 자매들이 중심이 되어 '89년 10월 30일 '중국어문선교회(中國語文宣教會)'를 창립하게 된 것이다.

방승대 중국어성경반 모태로 태동

본 선교회는 중국어문선교회라는 이름이 잘 말해주듯이 중국선교를 목표로 하되 주로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 즉 선교중국어 교육사업을 포함한 광의의 문서사역을 담당하고자



지난 '89년 10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중국선교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중국어문선교회'를 출범시키고 자리를 같이한 중국어문선교회 식구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선교를 하고자 하는 한국의 교회나 선교회와 함께 중국현지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선교지원단체이다.

본 선교회의 성격이 이와같이 규정된 이유는 선교회 창립경위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먼저 본 선교회의 모태가 된 것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중국어성경반이었다. 이것은 '84년 한국방송통신대학 내 중국어과가 신설되면서 초대교수로 부임한 박성주 대표간사가 이듬해 2학년으로 진급하는 중국어과 학생들 중 중국선교에 관심이 있는 2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어성경을 가르치면서 시작된 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그뒤 해를 거듭하면서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그들 대부분이 중국어성경반 내 연구부로 소속되어 그곳에서 연

구능력을 배양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따라 계속 발전되어 나갔다. 지금 현재 본 선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연구부 연구간사 두명 모두 이 한국방송통신대학 중국어성경반의 연구부 출신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중국어문선교회가 발족하는 데 있어서 한국방송통신대학 중국어성경반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문선교회가 있게 된 또 하나의 모태로는 '83년 6월부터 시작된 서울대 중문과 기도모임을 들 수 있다. 중문과 대학원생과 학부생 6명이 모여 시작된 이 기도모임의 당초 목적은 중문과 복음화였으나, 차츰 중국선교쪽으로 기도의 비중이 옮겨갔고 그에 따라 이 모임의 성격도 중국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으로 바뀌었다.

당시 이 기도모임에서는 마태

복음 11장 38절 말씀에 따라 회여져 추수하게 된 중국을 위하여 헌신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된 기도내용이었다. 그즈음 기도회에 참석한 한 형제로부터 특별한 목사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겨 하나님께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을 사랑한다고 차치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그 일에 먼저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그 기도의 진실성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도전이었다. 이 도전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차원에서 헌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어떻게든 주의 일에 참여할 방도를 찾던 한 형제가 서울대 대학원 선배이기도 한 한국방송통신대학 박성주교수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한 결과, 그곳 중국어성경반에서 함께 봉사하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한국방송통신대학 중국어성경반과 서울대 중문과 기도모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그후 얼마 되지 않아 서울대 중문과 기도모임은 기존 기도멤버들의 졸업과 함께 중단되었지만, 그것이 인연이 되어 당시 기도멤버 6명 중 2명이 간사로 나머지 4명이 회원으로 각각 중국어문선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것 또한 하

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창립 1년 2개월의 신생 선교단체,
현재 120여명의 회원들이
적극 활동중**

이렇게 두 모임이 모태가 되어 탄생한 중국어문선교회는 현재 방배동에 사무실을 두고 120여명의 회원에 3명의 비상임간사와 8명의 전임간사가 일하는 선교단체로 규모가 성장했다.

본 선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문: 방지일목사(전 중국주재 선교사, 현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대표 간사: 박성주(한국방송통신대학 중국어과 학과장). 총무부 간사: 이동화(서울대 대학원 중문과 졸). 교육부 간사: 안병국(한국방송통신대학 중국어과 교수). 연구부 간사: 김한성(성균관대 대학원 중문과 졸). 연구부 간사: 석귀희(성균관대 대학원 한국철학과 재학). 번역·출판부 간사: 빈미정(서울대 대학원 중문과 박사과정). 정기간행부 협력간사: 김준미(한국방송대학 중국어과 재학). 기도후원회 담당 협력간사: 김용배(한국방송통신대학 중국어과 졸). 사무 간사: 김성순(한국방송통신대학 중국어과 재학). 교육부 협력간사: 부지민(대만 문화대학 일어과 졸, 중국인). 선교중국어 연구전임간사: 최경생(북경 청화대학 졸, 중국인).

이상의 간사 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선교회는 인적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 때문에 어려운 여

건 속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일꾼들을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새해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인력의 낭비를 막는데 힘쓰고자 한다. 특히 회원 가운데는 서울대의 김학주 교수를 비롯 10여명의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연구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그 성과는 아주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어문(中國語文) 관련된
사역담당**

본 선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대로 본 선교회는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사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것을 크게 나누면 교육사업, 연구사업, 번역·출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방한 중국교포 전도사업을 추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본 선교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의 경우 다시 중국어성경반 운영, 선교중국어 연수, 교재개발, 간사육성프로그램 등으로 나뉘어진다. 앞에서도 언급이 된 중국어성경반은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서울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송대 중국어성경반이 역사도 길고 안정된 반면 서울대 중국어성경반의 경우는 아직 정착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인접한 총신대, 숭실대, 중앙대는 서울대 성경반과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다.

그리고 선교중국어 연수는 주로 중국선교사역에 헌신하여 훈련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집중훈련코스다. 현재 제2기 선교중국어 연수가 막 끝나고, 이어서 제3기 선교중국어 연수가 8주간 16회의 강의로 오는 1월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개설강좌는 초보자를 위한 초급 A코스, 중국어 발음과 기본문형을 익힌 사람들을 위한 중급 A코스, 중급 A코스를 수료하였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급 B코스 등 총 3강좌가 개설돼 있다.

교재는 코스마다 차이가 있으나 비디오, 오디오 교재를 병행하여 사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선교중국어 연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강의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것은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교재개발은 선교중국어 학습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이미 개발되어 나온 것으로는 「사도신경·주기도문」 「중국어 성경암송」 「날으는 집(비디오교재)」 「꿈 속의 고향(오디오교재)」 등이 있고, 선교중국어 회화책은 현재 개발중에 있다.

또한 간사육성프로그램은 간사들의 자기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간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까지 경건의 시간과 아울러 선교학, 중국선교론, 중국문화 이해, 중문신앙서적 강독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실 일선에서 일

하는 간사들의 부단한 자기 향상이 없이는 선교회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여기에 투자되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선교회의 주요사업으로 두 번째 소개할 것은 연구사업이다. 이것은 본 선교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월례선교세미나와 선교전략연구의 일환인 테마연구, 그리고 선교여행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먼저 월례선교세미나는 중국선교에 조예가 깊은 강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활동보고나 연구성과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창립과 함께 지금까지 한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된 프로그램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상현 선생의 '중국의료선교의 가능성', 김인철 전도사의 '중국 조선총교회 현황', 왕사악 전도사의 '중국교회사', 장규대 목사의 '중국현지선교보고', 본회 고문이신 방지일 목사의 '중국의 본색화(本色化)운동 이해'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테마연구란 중국선교와 관련된 여러가지 주제 가운데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중국의 종교정책'을 주로 다루었고 금년에는 '중국교회의 본색화(本色化)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지난해 말에 「사회주의국가의 교회와 국가」와 「중국의 본색화운동

개관」이 「중국선교연수시리즈(I)(II)」로 각각 간행된 바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테마연구의 연구성과를 모은 것이다.

“중국을 주께로” 드리기 위한 헌신 계속할 터

또한 중국선교여행은 이상의 두 가지 연구부 사업과는 달리 직접 선교현장을 답사하여 탁상공론식의 연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박성주 대표간사와 이동화 총무간사가 대륙을 다녀온 뒤를 이어 김한성 연구부 간사가 오는 4월에 이 중국선교여행에 참가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에 이어 본 선교회의 주요사업으로 소개할 것은 번역출판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름 그대로 번역사업과 출판사업을 주로 하는데, 출판이 되어 나온 책으로는 「중국선교핸드북」(두란노서원 출간 예정)이 있고 현재 번역이 진행중이거나 윤문중인 책으로 「중국기독교 백년사」와 「기독교와 중국」이 있다.

또 번역출판사업과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회지발간사업이다. 회지는 원래 회보 성격으로 매월 발간되었으나 지난 6호부터는 선교전문지 성격으로 그 성격을 바꾸면서 26면으로 증면된 바 동시에 격월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본 선교회의 주요사업은 방한 중국교포 전도사업이다. 이 사업은 본래 중국어문사역과 관련된 것은 아니나 방한 중국교포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중국선교

를 가시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90년 11월 초 본 선교회 회원을 중심으로 '방한 중국교포전도대'를 조직하면서 본격화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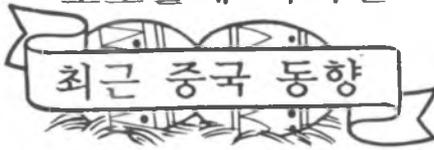
이 전도대는 '90년 12월부터 매주 월요일 CCC 예술인선교회 등과 협력하여 정동 CCC 회관에 150여명의 중국교포를 초청하고 식사대접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는데 매번 참석인원 3분의 1 가량이 결신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상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취지와 하는 일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책상 하나 놓고 더부살이하던 선교회가 1년여가 지난 지금 20여평 번듯한 사무실에 7명의 전임간사가 각자의 작업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대할 때면,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한다.

목자 없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14억의 영혼들— 그들은 이미 회여져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추수할 일꾼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재능이 있는 자는 재능으로, 건강이 있는 자는 건강으로, 시간이 있는 자는 시간으로,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로, 가야 할 자는 감으로, 보내야 할 자는 보냄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주께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기도드려 본다. ☞

중국어문선교회 연락처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2호.
전화/(02) 594-8038.

이동화/중국어문선교회 총무부 간사.



정 치

1989년의 6.4천안문 사건은 웅당히 진압되어야 한다는 공식을 중국 사상언론계가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입식 억지사상 세뇌운동이 지금 이 시기에 효과를 거둘 리 만무하다. 90대를 바라보는 중국의 당원로들은 젊은 시절에 혁명영웅주의와 과잉당성으로 의기충천하여 있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지식인들과 백성들이 매일 접하는 당의 중하층 간부들은 이념도 신조도 영웅주의도 결여된 사리사욕에만 눈이 밝고 부패비리에만 능란한 관료벼슬아치에 불과하다.

지금 중국의 사상 언론계는 90년대 시간에 50년대 공간을 억지로 틀어 맞추려는 시공간의 도착때문에 무기력하여 생기를 상실하고 있다.

지난 봄부터 진행하고 있는 「두개기본」에 대한 대학습운동도 그렇다. 기본국정(즉 나라사정), 기본노선(즉 당중앙의 정책) 학습이란 이 운동은 간단하게 말해서 정권안정의 절대필요성과 네 가지 견지, 그중에서도 당의 영도의 절대 필요성을 중, 하층간부들과 지식인들에게 억지로 주입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주입식 사상교육운동에 모든 사람은 마르크스레닌, 모택동, 등소평의 원저를 필독하여야 하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내가 지견지」의 정당성에 도달하여야 하고 사회주의 공산사상세뇌운동이 지금 이 시기에 효과를 거둘 리 만무하다. 영웅따라 배우기 운동이나 대학습 운동만으로는 언론계와 지식인들이 호락호락 설득되지 않을 것을 잘 아는 등소평을 위시한 중국 고위층은 이번에는 정치진압봉을 휘두르며 무수한 문자지옥을 만들어 이견을 갖고 있는 증견 언론인들을 무차별 탄압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90.12.13)

「제13기 7중전회」와 관련해 가장 주목을 끈 사항 가운데 하나는 천안문사태 때 당총서기로 시위학생에 대해 유화적 자세를 보였던 조자양의 처리문제.

국무원 대변인 위엔무(袁木)는 趙의 復權이 헛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반해 정치국 상무위원 리루이환(李瑞環)은 지난 8월 「조자양의 운명은 7중전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상반되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당지도부 사이에는 조의 장래와 관련,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6.4사태와 관련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복권되더라도 아무런 직무도 맡기지 않는다는 「3不」원칙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경우 조의 정치적 운명은 보수·개혁파간 타협의 희생물이 될 것 같다.

한편 7중전회에서는 극적인 주요인사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근 리펑(李鵬)총무가 「江澤民을 핵으로 하는 중국지도집단의 접반공작은 이미 순조롭게 완성됐다. 이러한 지도집단은 강력하고도 장기적, 안정적이며 권위를 가진 것이다」고 언명했다.

그러나 江澤民을 중심으로하는 제3지도체제의 등장이 과연 순조로울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 8월20일 鄧小平은 「전당은 모두 강택민을 존중하라」고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강의 권력기반이 취약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13기 7중전회」는 보수와 개혁파간의 타협을 기조로 사회주의이념의 고수와 개방·개혁정책의 지속을 내걸고 江澤民체제의 강화를 다짐하는, 표면적으로는 다분히 정치색을 은폐한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일보 90.12.17)

경 제

중국은 2000년까지 국민총생산을 1980년의 4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6%의 성장률을 지속해야 한다.

최근 성장률은 88년의 12%, 89년의 4%, 그리고 90년 상반기의 1.6% 등 부진하다.

이에 반해 물가상승은 1990년 8월까지 평균 3.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경제부진은 조자양의 「계획있는 상품경제」의 도증하차를 수습하기 위한 긴축정책의 여

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2년에 가까운 「治理整頓」시기를 넘어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정책 제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붕 등 보수파의 입장은 「계획경제와 시장조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정책의 추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재는 계획성이 그 중심이다.

경제부진의 타파가 개혁·개방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곧 계획보다 상품경제를 위주로 한 조자양식 경제노선에의 회귀로 연결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와 학계는 「비교적 계획적인 상품경제체제의 수립」이 중국의 개방·개혁의 모델이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활발한 토론과 소신이 피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6.4사태이후의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90.12.17)

중국은 이번 제13기 7차 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7중전회)를 통해 현재의 경제안정정책을 기저로 유지하면서 가격과 임금제도를 대폭 개혁하는 등 개혁과 개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홍콩의 신문인 文匯報가 25일 보도했다.

文匯報는 7중전회에 회부된 당중앙위의 「8.5계획 및 10년계획 건의서」를 인용, 중국지도부는 오는2000년까지 연평균 6%의 비교적 완만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8.5계획기간의 첫 2년간은 현재의 긴축경제를 유지, 경제조정정책에 역점을 두고 나머지 3년 간은 경제발전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90.12.26)

한국은 30일 오전 北京市 建國門外大街 1번지에 위치한 국제무역센터 13층에 마련한 임시사무소에 「대한무역진흥공사 駐北京대표부」의 현판식을 갖고 역사적인 북경주재 무역대표부를 공식 개설했다.

국내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駐北京 대한민국대표부」란 명칭을 갖고 영사기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외교공관 기능을 가진 이 무역대표부 현판식에서 盧載源대표는 한국과 중국간의 상호 무역대표부 개설이 양국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91. 1. 30)

중국은 80년 廣東省의 심천, 珠海, 汕頭와 福建省의 廈門에 이어 85년 海南島를 다섯번째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90년 4월에는 上海時에서 浦東新區를 신설했다. 또 85년 2월에는 해안가 14개도시에 미니특구격인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했다.

경제특구 등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中國내 보수파들의 비판이 나온 85년이후 외환규제와 함께 외국계회사의 특구지역 투자도 제조업에 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한편 97년의 홍콩반환을 계기로 심천을 포함한 廣東省과 홍콩의 일체화가 추진되고있다. 경제기술개발구 중에서는 특히 大連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 (중앙일보 91년 2월 12일)

사 회

최근 北京大에서는 상급생들이 하급생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벌이는 「의식화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6.4사태이후 신입생들이 군사시설에 수용돼 1년간 교육을 받고 복교하자 상급생들이 이들에게 주입된 「害毒」을 제거하려 나선 것이다.

천안문사태를 정부에 의해 「반혁명 반란」으로 교육받는 하급생들이 「마치 외국인처럼 보였다」는 상급생들은 이들의 재교육에 책임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당과 군내에서도 파벌간 대립이 심각하며 요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도청」과 함께 감시·우편검열 등이 철저히 실시되고 있다고 북경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다.

개혁·개방의 진행과 함께 중국 역시 도덕성 상실과 배금주의 풍조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문맹인구는 공식적으로 2억 3천만명이다. 지구상 문맹자 4명에 1명은 중국인이라는 통계비교가 보여주듯 최근들어 연간 2백만명씩 문맹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청결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과거의 평가와 동떨어지게 창녀, 매춘등 이른바 「6害」 문제로 중국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미 중국식 「범죄와의 전쟁」을 추진중인 북경당국은 그동안 8만 6천여 명을 매춘행위로 검거했지만 범죄는 확산일로에 있다. 이같은 성범죄의 확대는 성과 결혼관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간 9천 2백만 명씩 배출되는 신규 노동력의 흡수문제와 함께 실업증가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6.4사태이후 중국정부가 보수노선을 취함에 따라 18개월 동안 3백만 개의 사기업이 문을 닫아 정부의 통제와 지시가 가중될수록 민생이 위축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일보 90.12.17)

중 고

「지난해 베이징에서 대학살이 일어난 뒤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어졌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 고위장교의 아들인 젊은 공산당원이 한 이 말은 1989년 6월의 천안문 민주화 시위가 인민해방군에 의해 무력진압된 이래 광범하게 확산되어 온 중국사회 내부의 정신적 공허감을 반영하고 있다.

본명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서 완첸이란 가명을 사용한 이 젊은이는 많은 중국인들처럼 공산당원 자격이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부친의 강권으로 당에 가입했다. 왕은 그러나 「나는 작년 이후 내가 당원임을 더이상 합리화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뿐만 아니라 왕첸은 기독교에 귀의하게 됐다. 왕은 사회적 도덕성이 결여된 중국사회에 심한 환멸을 느낀 나머지 마침내 교회로 눈을 돌리는 수많은 젊은이들 중 하나이다. 작년에 일어난 민주화운동 기간 중 각종 시위와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베이징대학교 학생들은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학의 한 학생단체는 성경과 기독교가 서구문화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세미나 내건을 조직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학생은 「학생들이 서구문화에 큰 호기심을 갖고 있으나 상당수 학생들은 이 세미나에서 단순한 호기심 이외에 사회적 이상의 공백을 메울 그 무엇을 찾아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한 강사에게 기독교인이 되는 법과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모임이 있다는 소식은 학생들 사이에 급속히 전파돼 두번째 세미나에서는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으며 이에 놀란 대학당국은 이 세미나 시리즈를 중단시켰다.

기독교인임을 공식적으로 자인하고 있는 중국인은 7백만 명이나 이밖에도 수백만 명이 은밀히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일보 90.12.18)

동북아신학교협의회는 지난 25,26 양일 간 일본동경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북한과 중국의 신학교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 회장인 장신대 맹용길학장, 총무인 연세대 박준서교수 등 우리나라 대표와 일본, 대만 등 실행위원들이 참가한 이번 모임에서 북한신학교 가입문제는 일본측에서, 중국신학교 가입은 우리측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준서 교수는 전국 신학대학협의회가 올여름 중국에 신학대학 시찰조사단을 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창립 25주년이 되는 내년 6월 중순 일본 경도에서 대규모 아시아 대학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 신학자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회신문 91.2.3)

최근 중국선교의 길이 폐쇄돼가고 있는 반면 중국내 기독교문화는 점차 뿌리를 내려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4일 기독교아시아연구원 주최 「중국선교연구세미나」에서 「중국교회와 중국에서의 기독교선교」에 대한 주제강연을 맡았던 홍콩 아미티(애덕)재단 필립 위커박사에 의해 밝혀졌다.

위커리박사는 강연을 통해 「최근 중국정부는 정책적으로 삼자주의를 고집, 해외선교기관의 중국에 대한 복음전파를 방해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 지하신학교등이 활발히 세워지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인 목사 왕 웨이판이 저술한 “들에 핀 백합화”와 같은 신앙서적들이 교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성서연구와 신학논문이 다수 발간되는 등 기독교문화가 싹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커리박사는 「중국내에는 한인교포 1백80만명이 살고 있으며 이들중 기독교인이 1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숫자는 중국전체기독교인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인교포 기독교인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한국의 중국선교단체들은 삼자정책에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삼자정책과 한인교포기독교인을 활용, 지혜로운 선교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1991. 2. 8)

12월 5일발 신화사통신(鄭慶東, 羅布次仁기자)에 따르면 국무원 총리 李鵬은 이날 개막된 전국 종교공작회의석상에서 종교신앙자유정책의 확고한 집행과, 종교공작의 효율적 수행에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원소집에 개최된 전국종교공작회의는 이날부터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교석, 오학겸, 정관근, 아페·아왕포미, 양정인 등의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이붕은 이 회의석상에서 중요한 강화를 행하였다.

이붕은 이 강화에서 금후 10년을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의 관건이 되는 기간임을 상기시킨후 이 기간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 인정되고 단합된 환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런 관점에서 종교공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종교문제를 타당성있게 처리하려는 노력은 국가의 안정과 민족의 단결, 조국통일 촉진, 세계평화유지 및 90년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공작수행상황은 양호한 편이라 계속 당의 종교정책을 한층 더 과감히 수행하여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각 민족종교계의 애국정치연맹이 공고하게 되고 확대되며, 종교계 애국인사와 각 민족의 광대한 신도들이 당의 노선과 방침 및 정책을 옹호하게 되어 결국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역설했다.

이붕은 또 사회전반에 걸쳐 이러한 신도와 일반인 간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른 교파의 사람들 간에 단결을 증시하고 피차 존중하며, 상호단결하고, 서로 화목하는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붕은 다수군중이 종교를 믿지 않는 지방에서는 소수 종교인의 권리를 보호 존중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다수군중이 종교를 믿는 곳에서는 소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권익보호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종교를 믿는 군중과 종교를 믿지 않는 군중을 단결하게 하여 사회주의 조국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붕은 이어서 중국내의 각 종교인사와 국외의

종교계 인사 간에는 일정한 연계를 가지면서 평등우호의 기초하에 대외교류를 하는 것은 결국 중국인민과 세계각국인민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여 중국의 대외개방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왕에 종교계 독립, 자주, 자양의 방침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외 적대세력의 국내 침투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진다면 국외의 우호적인 인사와 교류하는 것은 결국 개혁 개방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붕은 끝으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당의 종교신앙자유정책의 전반적이고도 정확한 집행을 관철해야 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지하여야 하며 공민의 종교신앙자유권리와 종교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현상을 확고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및 각 유관 부처가 국가 헌법과 관련법규를 철저히 집행하고 또 정책규정에 따라 종교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종교를 믿는 군중과 종교계인사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유익한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원 비서장 羅幹이 이날의 회의를 주재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중앙국가기관 및 유관부서, 단위, 군중단체의 책임자 200여명이 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중국 인민일보 1990.12.6 번역:김한성)

經文背誦(성구암송)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1:16)

我不以福音爲恥：這福音本是 神的大能，要救一切相信的，先是猶太人，後是希利尼人。(羅馬書1:16)

Wǒ bù yǐ fúyīn wéi chǐ; zhè fúyīn běn shì Shén de dànéng, yào jiù yíqiè xiāngxìnde, xiān shì Yóutài rén, hòu shì Xīlīnǐ rén. (Luómǎshū 1:16)



중국대륙 선교보고

왕 충 성 (중국 순회 선교사)

할빈조선족 국민학교방문

장춘에서 다섯 시간 화차(연탄을 피워가는 기차)를 타고 다섯 시간 광야를 달려 할빈 역에 도착했다. 할빈 역에서 독립운동 당시 이동방문을 저격한 장소 바로 그 지점에 섰을때 그 날의 역사의 일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택시를 타고 우리 조선족 동족 국민학교인 할빈 국민학교를 방문했다. 우리 동족은 동북삼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 주로 많이 살고 있고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약 250여만 명이 중국일대에 산다. 동북삼성의 동족 국민학교는 우리말로 된 책으로 배우게 된다. 그래서 한국의 얼을 연이어 가고 있다. 내가 국민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광경을 지켜보았고 3학년 교실에서는 특활시간을 맡아 가르쳤다. 특히 비밀의 전도 책자 『글 없는 책』으로 구체적으로는 전도할 수는 없었으나 많은 교훈을 했다. 어린학생들이 우리말을 완벽하게 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인사를 할 때 내눈에서는 눈물이 핑돌며 한 피의 즐거움을 찾는 듯했다. 김교장 선생님을 만나 학교의 전교생 150명에게 선물을 사주라고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다.

중국 깊은 골짜기에도 복음의 발길이!

하얼빈에서 화차를 타고 12시간 밤을 새며 가서 또 다시 3시간을 차를 타고 깊이 들어갔다. 이 깊은 곳에서 돌아올 때는 북경까지 28시간이 걸리는 곳이다. 중국대륙에는 다섯시만 되면 땅거미가 대륙에 깔린다. 밤에는 전력소모를 하지 않으려고 불을 끄는 곳이 많아 거리 마다 어둡다. 어두운 역을 빠져나와 연탄연기를 뿜으며 소리치며 달려오는 화차를 볼 때 선교지역을 간다

는 기대와 기쁨에 귀청이 터지도록 소리치는 화차도 반갑기가 그지없다. 화차에 올라 간신히 자리를 잡은 나는 이제까지 장거리 여행에 지쳐버렸다. 거북이 걸음으로 가는 화차 안에서 피곤하여 골아 떨어졌으나 깊은 잠은 못 이루고 몇 번이고 곧 잠을 깬다. 그 원인은 중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들기 때문이고 중요한 사실은 내집을 잘 지키지 않으면 밤 사이에 도둑을 당하는 것이다. 많은 외국인이 화차 안에서 중요한 가방들을 도난 당했다. 가난한 중국인! 나는 한편으로 동정이 간다 그래서 나는 성경책과 선물을 넣은 가방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행어나 성경책을 가져간 사람이 감동되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모든 가방은 그대로 있었다. 화차에서 내리기 직전 옆자리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 선물을 주었다. 화차에서 내리니 새벽5시 쌀쌀한 바람은 처음 이지역에 온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았다. 홀로 역 광장에서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으니 3시간 동안 갈 차편을 보내주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서지 않는가 주님의 응답으로 교회를 세울 그 골짜기 무사히 갈 수가 있었다. 내 입에서 감사 찬송이 터져 나왔다.

교회를 세우는 감격

중국대륙의 깊은 골짜기 마다 교회가 없다. 어떤 열정적인 성도는 멀리 있는 교회를 가기위해 3시간 걸어 온다. 그러나 그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기쁨이 넘친다. 시골에는 초가집에서 가정예배로 모인다. 중국전역에 한인목사는 두 명뿐이니 이 시골은 목사님 얼굴도 본적이 없다.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 보다 안타까운 일은 그 초가집이 15명 더 이상 앉을 수 없는

좁은 곳이다. 사람이 많아지면 공원으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다. 베세지 후 그날 초청에 응하여 모두 손들고 결심을 했다. 그 중 몇 사람은 감격하여 구원의 첫사랑에 못이겨 눈물을 그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또 하나의 눈물을 보았다. 교회건물이 없어 안타까워 하는 그들에게 교회건물을 하나 준비해 준 후에 감격하는 눈물이다. 나는 이제까지 이러한 감격의 눈물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의 교회가 이 골짜기에도 세워지니 나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 같이 울었다. 그날밤은 7시간을 계속 성경을 가르쳤다. 다리가 떨리지만 초롱초롱한 그들의 눈빛에 비하면 밤을 새워도 새힘이 샘솟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잘 살고 있다. 이곳의 동족들의 교회를 준비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교회를 준비하려고 헌금 하신 분은 우리돈 200만원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주셨다. 그 분도 풍족한 분은 아니지만 뜨거운 선교의 사랑 때문에 기적을 이룬 것이다. 다음교회를 위해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 또 나올 줄 믿는다.

가난한 농촌생활

우리 동족은 농사를 주로 짓고 있다. 나는 깊은 농촌의 초가집 풍경이 그리워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보통 농촌의 집의 구조는 방 한 칸, 방에 달린 부엌과 창고 등이다. 방 한 칸에 어떤 가정은 온 식구가 같이 잠을 잔다. 나도 구석에서 끼어서 곤한 잠을 이뤘다. 몇 번이고 잠을 깬다. 방이 좁아서 옆사람이 나를 치기 때문이다. 식사는 밥에 반찬 하나 뿐이다.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혔으나 주인이 미안해 할까봐 간신히 넘기며 웃는다.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하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 변소는 동네 공동변소로 바닥에 구멍을 10개 정도 뚫었고 칸막이도 없이 두 줄이 마주보고 볼 일을 본다. 목욕시설이 없어 땀에는 냄새가 나지만 하루만 같이 자면 나도 비슷한 사람이 되어 버리니 도리어 자유로워진다. 불쌍한 이들에게 옷가지, 가방, 성경, 돈 모두 털어주고 나면 허전하고 갈길이 걱정 되지만 이 기쁨이 다른 것에 비길 수가 없다. 그 농촌을 떠날 때는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손을 흔든

다. "또 꼭오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이 한 마디만으로 난 만족하다. 지금도 그 동네는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계속 되고있다.

86세 할머니 설교자

중국 길림성 두만강에서 삼십분을 들어가면 86세 할머니집사님이 있다. 지난번 갔을때는 건강하더니 86세가 된 후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전도하고 계신다. 내가 그 동네를 갔을 때 길거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전도하고 있었다. 온 동네 집집 마다 다니며 방문 전도를 하는 노 집사님께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한다. 26세에 두만강변으로 남한에서 이주한 뒤 문화혁명을 거치며 성경, 찬송을 빼앗기는 등 많은 핍박을 당한 집사님은 그 교회를 위해 평생을 바친 것이다. 주일날이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단 위에 올라가 설교를 담대하게 하신다. 86세가 되어 앞니가 많이 빠져 발음도 이상하나 열정적인 설교에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곳에 교회를 사주니 한동안 머리를 숙이고 한없이 울었다. 이 울음은 많은 고난중에 맛보는 평생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남의집에 붙어 사는 이 할머니, 따뜻한 방이라도 있다면 떨지나 아니 하실텐데, 걱정만 하고 실천은 못해 부끄럽기 그지없어 할머니를 엮고 다리를 건너 주었다. "주여! 이들을 도와 주소서" 〰

※ 왕충성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은행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왕충성 선교사에게 전해드립니다.
수취인: 중국어문선교회
제일은행: 378 - 10 - 054509



중국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자 근 중 (본 선교회 회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처음엔 아시아지역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예수의 영(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였고 밤에 도움을 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뒤엔 전도지역을 바꾸어 유럽방향인 마게도냐로 발길을 옮기게 된다. (행16:6-10)

아시아쪽에서 유럽방향으로 가자면 맨처음 만나는 곳이 마게도냐땅이고 마게도냐의 첫 지경은 빌립보라 하는 곳이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맨처음 만난 사람이 자주(紫紬)장사를 하는 여인 루디아였고 그 여인이 후에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돕게 되고, 그 결과 바울에게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은 빌립보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선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와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940년 전 바울과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조종하였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예수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움직여 천국확장사업을 지속해 오셨다.

1990년 9월 16일 주일새벽, 서울근교에 자리한 P교회 S목사에게 전달된 한 통의 서신은 얼마전부터 중국선교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왔던 그 교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장이었다. 중국 동북부의 조그마한 마을로부터 한 여인에 의해 쓰여진 이 서신은 S목사를 깊이 감동시켰고 곧 바로 수습 부로 복사되어 전교인들에게 나눠주었으며, 당일 대예배 때 S목사는 준비했던 설교내용까지 바꾸어가며 성도들에게 중국선교를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을 호소했다.

중국 동북부의 N시(市)는 중국인과 조선인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는 곳이다. 이 현대판 사도행



전 스토리는 이 시에 살고 있는 한 조선족 여인으로부터 비롯된다. 김루디아(가명), 십년전 온몸의 질병과 절망 속에서 신유와 구속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이 여인은 이미 60을 넘긴 노구에 세상지식도 그리 많지 않고 가진 재산도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수의 사랑으로 한없이 부유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녀의 온 심령과 마음과 육체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달구어져 있었기에 방안에 혼자 앉아 조용하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만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녀는 낡은 가방에 중국어 성경, 찬송, 한국어 성경, 찬송을 챙겨 들고 세상먼지와 시궁창 속에 뒤범벅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집을 나섰다. 병든 자, 가난하고 억눌림 받은 자, 절망적인 삶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 등 흑암의 세상 속에서 애통하고 있던 양들에

게 그녀가 전해주는 복된 소식과 따뜻한 위로와 힘있는 사랑과 새로운 삶에 대한 권고는 얼음장과 같이 얼어붙은 그들의 심령을 녹여주는 봄바람이었고 희망에 찬 멜로디였다.

세상죄악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그녀를 통해 성령의 묘약이 먹여지자 그들은 곧 치유되었고, 그녀를 중심으로해서 양의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양의 무리가 형성되고 점차 그 수가 불어나자 이젠 양우리인 교회건물이 필요했는데, 빈손만 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커다란 성전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 성전을 중심으로 300여명까지 불어나는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고자 사단에게 시험을 허용하셨다. 곧 그 건물은 공안국에 의해서 압수당하고 성도들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벌금을 물고 자기의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행동범위에 제약을 받는 등 엄청난 시련이 시작되었다. 때마침 양의 얼굴을 가장한 이단의 교묘한 헛바닥이 그 곳 성도들의 연약한 심령을 핥고 지나가기도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김루디아는 “죽으면 천국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게 이루어 주신다” 라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용병으로서 힘차게 사단의 꾀계를 대적해갔다. 끊임없는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싸워나갔고, 결국 그녀를 심문하던 공안국직원들까지도 그녀의 기도 능력을 인정하게끔 되었다. 육 개월 간의 처절한 싸움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않는 여종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연단의 불길을 늦추시고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그녀와 그 교회에 부어주셨다. 육 개월 환란기간 동안 김루디아는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교회에 지원 요청의 편지를 띄웠으나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동역의 끈을 개척한지 5년밖에 되지 않고 성도 70명의 조그마한 P교회에 연결시키심으로 낮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원리를 또 한 번 증명하였다.

P교회 성도들은 즉시 헌금을 모아 지원금을 만들었고 집사 한 명을 헌지로 파송하여 귀중한 하

나님의 물질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곳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도움 방법을 강구 하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일은 조금도 빈틈없이 이루어져 삼 개월 동안 두 차례의 선교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미 새 성전이 마련되었고 또한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해 앞으로 3차, 4차, 5차...의 선교여행이 진행되어야하며 지금 준비중에 있다. (때때로 곳곳에서 선하게 이루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곳의 상세한 형편을 특수지역선교의 제약상 구체적으로 다 서술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욱 자세한 상황을 듣기 원하거나 그곳 선교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0344) 974-2658에서 자근종을 찾기 바람)

노여종이 세운 그 교회는 현재 12개 처소(중국에서 교회보다 작은 단위를 지칭함)에 500여명의 성도들을 관리하고 있다. 본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12개 처소의 위치를 그려보면 그 직경이 약 500리 가량된다(기차나 버스로 약 3시간) 평상시에는 각 처소에서 예배를 보고 절기나 부흥회 때에는 본교회로 모여 며칠씩 같이 침식하며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만 허용되면 성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성전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동산임과 동시에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장으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곳에는 아직도 많은 처소가 성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양육시켜야 되고, 그들 스스로가 자립하여 그들도 선교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해주어야 한다.

중국선교는 아직 때가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은 절대 넌센스이다. 어느 때, 어느 지역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순교를 각오한 사역자들이 있는한 선교는 항상 최적기(最適期)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더욱 개방될 것이고 그와 함께 선교사업의 여건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하다. 12월 4일에 발표된 중국 리펑(李鵬)총리의 종교개방에 대한 담화는 중국선교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들에게 펴 고무적인 것이었다.

작년 7월 중국국무원에 제출된 인구센서스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인구가 이미 14억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전세계 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요의 영혼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땅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지상명령은 우리들을 재촉하고 있다. 지금 대륙에 있는 중국인들은 복음을 쉽게 잘 받아들인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종교적인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마귀를 좇든지 항시 둘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있다. 40여년동안 무신론적 유물론을 강요받고 살아온 그들의 영혼은 몹시 공허해져 있다. 40대 이하의 젊은이들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중국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복음이 들어갔으나 그들에게겐 대대로 전승해오던 유·불·선(儒·佛·仙)이 혼합된 민간 신앙이 너무 깊게 자리잡고 있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금도 대만을 가보면 집집마다 골목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공산당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대륙에서는 모든 우상이 깨부서졌으며, 모든 종교활동이 금지되었었고 죽으면 매장하지 않고 모두 화장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풍습까지도 깨끗이 없어졌다. 이제 그곳 사회가 점차 개방되고 종교 자유의 폭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옛풍습이 다시 되살아나기 전에 어서 빨리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 주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선교에 있어서 동북3성(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선교는 더욱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조선족들은 신앙이 심어지기만 하면 대단히 순수하고도 커다란 열정으로 하나님일에 열중하고, 이웃간에 유대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전도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언어·문화면에서 그들과의 접촉과 이해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먼저 훈련시킨 다음 중국의 언어와 문화·습속에 익숙해 있는 그들로 하여금 중국인 선교를 직접하도록 하고 우리는 후방지원만 잘 해주면 된다는 선교전략상의 이점을 갖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곳의 조선족들은 북한에 친척을 둔 사람들이 많고 연락이 빈번하므로 그들을 통해 북한선교도 담당케 하므로써 일거삼사득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조선족들은 하나님께

서 이 때에 쓰시고자 예비해놓으신 복음의 정병들이 분명하다.

흔히들 해외선교라하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대개가 선교대상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경제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도 중국은 우리의 선교지로 대단히 적합한 곳이다. 한국돈 삼만 원이 그곳 사역자 한 가족의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한다. 오백만 원이면 약 1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하나 설립할 수 있다. 필자의 어렵게산으로 물가지수·부흥속도·성도들의 열정·훈련된 뒤의 사역효과등을 종합해 볼 때 똑같은 양의 물질로 국내선교보다 100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국내선교도 중요하지만 말이다. 앞서 소개한 P교회의 S목사는 최근에 방글라데시를 찾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홉 개나 설립하고 돌아왔다. 그곳에서는 한화 칠십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세운다. 이만 원이면 그곳 전도인의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다. S목사는 7년안에 방글라데쉬에 400개의 성전을 세워 1억2천만명의 인구에 회교국가인 방글라데쉬의 역사를 바꾸어놓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3억 원이면 아파트 한 채 값이고 명동에 가면 3평의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곳이 국경넘어 바다 건너엔 얼마든지 있다.

선교는 선교를 받는 쪽도 축복이지만 선교를 하는 쪽에는 더욱 큰 축복이 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큰 것에 대해서는 잠시 생각치말기로 하자. 일단 선교를 시작해보라. 바로 많은 동역자를 얻게 된다. 여러가지 방법과 루트를 알게되고 구체적인 선교계획을 얻게 되고 비전은 날로 더욱 커진다. 그것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 더 큰 축복은 우리의 미약한 힘을 모아 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 많은 영혼들을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였다하는 주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슴 뿌듯한 보람의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소리와 지시에 민감하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여 나에게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청원 드려보지 않겠는가? ☞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박지화 전도사 (본 선교회 회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장 8절)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이요, 부득불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의식 가운데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엔 중국대륙의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묵상과 더불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나 중국대륙선교에 대한 불붙는 마음과는 달리 중국선교의 문은 굳게 닫힌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중국과의 국제정세를 개선하여 중국교포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한국방문 목적은 한약을 가지고 와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도나도 돈을 벌겠다고 빗까지 내어 엄청난 분량의 약을 구입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핑 먹고 알 먹는다는 식으로 고국도 방문하고 약장사도 해서 한 몫 단단히 벌어 집도 사고 잘 살아 보려고 했는데 약이 가짜가 많다는 보사부의 발표에 의해 약은 팔리지 않고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빚에 대한 근심 속에 이들은 좌절과 실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때는 이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장 28절) 긴박한 상황 속에 오로지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고 했습니다. 중국교포들이 이 땅에 와서 약을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중국에 가지 않아도 중국을 복음화시킬 기회를 주시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저희 중국어문선교회 복음전도단의 일원으로 중국교포전도에 나섰습니다.

참으로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과 뜻있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물심양면으로 봉사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숙식제공과 선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참여도는 높아갔습니다. 하기야 굶주리는 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거기다 관광과 선물공세까지 하는데 싫다할 사람 있겠는가? 오로지 약파는 일에 급급한 이들을 바라보며 공짜라면 양젓물이라도 마시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볼 때 과연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인간적인 의문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하루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제 눈에 비치는 몇몇분의 모습에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도 모르던 그들이 소리높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아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혹시 약을 팔지 못한 신세타령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기도를 마치고 눈물을 닦는 한 자매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你好嗎! 안녕하세요? 실례가 되지않는다면 잠깐 앉아도 될까요? 자매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자매님을 사랑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자매님은 왜 우셨냐고 여쭙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중국돈 사만원을 빚내서 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약은 못팔고 빚만 지게 됐습니다. 중국에는 남편과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약을 팔지 못해 빚을 지게 된다면 내 남편과 아들은 그 빚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하기를 차라리 빚을 지느니 고국 땅에서 자살을 하자 하고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내 마음에는 지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 나는 내일 새벽에 포항엘 가야 합니다. 거기 두고온 약을 가져와서 적십자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 백만원 정도는 적십자에서 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 갑니다. 내일부터 다시 이어지는 3일간의 전도집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약 못 팔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의 가슴은 벅찼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나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자매님 남편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럼 아드님은?”

“가는 교회에 미쳤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나보고 늘 교회 가자고 했지요. 그러나 그 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 중국에 돌아가면 아들과 교회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자매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역만리 머나먼 타국에서 한시도 고국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던 자매님에게 고국방문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도 성도 몰랐

던 저희들이 동포애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절망과 좌절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끊고자 했던 자매님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경에서 순경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간시간 많은 은혜를 주옵소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옵시고 중국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잘 믿는 자매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한 자매님께 또 다가가서 여쭙았습니다.

“你好嗎! 안녕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신 모양이지요?” 라고 묻는 제 물음에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집 옆에 사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국가 돈을 심심찮게 훔치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닐거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도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목사님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누구도 다 죄인이라고 목사님께 말씀하실 때 우리 옆에 사는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무척이나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워했던 내가 부끄럽습니다. 나도 죄인이니까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중국에 돌아가면 교회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랑에 정말 놀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저 보고 중국에 초청할테니 꼭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들처럼 잘 해 주겠다고 덧붙이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그분 역시 제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 드리자고 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저와 이 자매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오늘 사랑하는 자매님을 불러 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주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빛을 졌으니 자신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고 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자매님의 앞날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며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겹도록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우리들의 봉사가 헛수고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했던 예상과는 달리 40여년만에 고국땅을 밟고, 꿈에도 그리던 혈육과의 상봉의 기쁨보다도, 울어도 또 울어도 흐르는 눈물가운데 만나는 부자간의,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의 장면을 부족한 제 언어 구사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족한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져 택자의 수를 채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중국교포선교가 작은 불씨가 되어 성령의 봉화불로 이어져 중국을 향하여 번져나가고 북한과 또한 세계 공산권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받은 바 모든 은혜를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마라니타! 悤



☒ 선교 도서 안내 ☒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있나? 3,000원
(전문인 협력기구)
2. 중국선교 --교회의 대장정-- 3,500원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교재 안내 ☒

1. 中國語 聖經 5,000원
(신약+시편+잡언:주음부호)
2. 使徒信經, 主禱文 外 1,000원
3. 經文背誦 1,000원
4. 睡夢鄉(兩塊錢, 好心人) 1,000원
5. 飛行屋(離家出走) 1,000원
6. 初級中國語(I) 2,000원
7. 中國文化二十講 5,000원
8. 예수 讚美(중국어 찬양집) 3,000원

☒ Tape 안내 ☒

1. 使徒信經, 主禱文 外 1,000원
2. 經文背誦 1,000원
3. 中國文化二十講(3개) 1,500원
4. 睡夢鄉(兩塊錢, 好心人) 1,000원
5. 飛行屋(離家出走) 1,000원
6. 初級中國語 I (10개) 5,000원

※ 구입 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하거나 지방에 계신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T. 5 9 4 - 8 0 3 8)

☒ 정기세미나 안내 ☒

주 제 : 중국의 교육제도와 선교 전략
강 사 : 김베드로(KCIT 사무국장)
일 시 : 1991년 2월 25일(월) 오후7시
장 소 :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T. 594-8038)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 활동 상황

▣방송대 중국어성경반▣

새해를 맞아 1월 22일에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방송대 중국어성경반 모임을 다시 갖기 시작했습니다.

91년에도 많은 기도와 새로운 임직원들의 열심으로 중국어성경반의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성경공부의 내용은 1부에 「사도행전」의 본문을 가지고 공부(지도: 박성주 교수)하고 있으며, 2부는 믿음반(1학년), 소망반(2-3학년), 사랑반(4-5학년)으로 나뉘어져 분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집회의 사회를 중국어로 인도하고, 새로운 중국어 찬양을 배우는 등 다양한 순서로 중국어의 실력을 배양하며 또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에는 회원 총동원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오랫동안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우들도 모두 함께 참석하여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중국어성경반▣

89년 5월 어느날에 결성된 우리 성경반은 햇수로 3년 되는 91년 1월 저녁 다섯 명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난방도 없는 썩한 곳이었지만 우리중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힘차게 전진이다.”

1월 22일 기도원으로 M.T를 다녀왔다. 감사의 찬양과 열심으로 드린 기도가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다. 조직이 갖추어졌다. 총무에 김세훈(89학번), 회계에 최형섭(90학번), 찬양담당에 문창윤(90학번), 그리고 지도교사로 김성곤(81학번)이 선정되었다. (한 형제는 급한 불

일이 있어 밤에 산을 내려갔으므로 임원선출에서 제외되는 불행(?)을 맞게 되었다.) 사업계획을 토론하였다. 3월은 신입생환영회, 4월은 전회원 기도원M.T, 7월은 상반기 결산 M.T가 결정되었고 옛날 박성주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찬양훈련에 보다 많은 시간과 정열을 할애할 작정이다. 그날 기도원의 높은 산봉우리에서도 우리 서울대 중국어성경반원의 깊은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퍼지는 물론이다.

▣인하대 중국어성경반▣

인하대 성경반은 겨울방학 중에도 꾸준히 모임을 가졌으나 세 명 외에는 거의 나오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번에도 주님께 동역자를 보내어 주실 것과 중국어성경반이 정착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다. 중국어성경으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매주 한 구절의 중국어성경요절과 한 곡의 중국어찬양을 배우고 “中國社會主義時期的宗教問題”를 운독중에 있다.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갖고 있으며 인천의 모임을 갈망하고 있고, 더 많은 형제자매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새식구를 맞이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전국대학의 중국어성경반은 본 선교회에 자신의 활동상황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본 선교회는 이를 회지에 소개함과 아울러 필요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 찬양을!

頌讚全能上帝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Bob Fitts

♩=74 C Cmaj7 Dm F/G G F/G G7
 0 5 5 6 5 4 0 3 4 | 3 2 2 - 0 i | i 7 7 7 6 5 . 6 |

天 上 的 父 神， 我 們 愛 稱， 在 全 地 上 尊 崇 稱

C F/G G C Cmaj7 Dm7
 5 . 4 3 0 3 4 | 5 5 5 6 5 4 3 4 | 3 2 2 0 2 3 |

聖 名， 願 祢 國 度， 如 今 降 臨 我 們 中 間， 當 我

F/G C F/G G C Em7
 4 4 5 6 7 | i 2 | i 0 5 6 7 7 5 | i - 7 . i |

們 宣 揚 祢 奇 妙 作 爲。 頌 讚 主 聖 名， 全 能

G/F F Dm7 F/G G F/G G C F/G G
 7 6 - 0 i | i 7 7 7 6 5 . 6 | 5 . 4 3 5 6 7 7 5 |

上 帝， 昔 在 今 在 永 在 的 父 神； 頌 讚 主 聖

C Em7 G/F F Dm7 F/G G7 C F/G G
 i - 7 . i | 7 . 6 6 - 0 i | i . 7 6 7 | i - 0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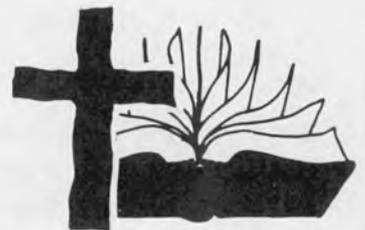
名， 全 能 上 帝， 祢 作 王 到 永 遠！

F/G Gdim Am Am7 D9 F/G G C
 i - 7 6 7 | i - - 0 i | i . 7 6 7 | i - - - ||

作 王 到 永 遠， 祢 作 王 到 永 遠！

우리말 가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 - 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 - 양 영원히 다스리네



기도편지

1. 도서출판 「愛華」 등록을 위하여
본 선교회는 「중국어 성경교재」 「중국선교 연구시리즈」 「복음비디오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출판물도 많아지고 또 판권문제도 있고 해서 정식으로 출판사 등록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출판사 등록의 의제중 하나는 출판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선정, 저자 및 역자선정, 교열, 인쇄 등 각 부분에 책임성과 공익성 및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석귀희, 김준미 출판간사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간사가 경험은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는데 업무능력이 높이 향상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출판기금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이레'의 하나님께서 출판에 필요한 경비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中國宣敎를 위한 지도자 양육훈련(L.T.C) 위하여

선교회는 앞으로 방한중국교포, 중국인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지도자 훈련코스(L.T.C)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1) 중국선교에 소명있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훈련받고 방한교포 전도 및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한국대학생선교회(CCC) 금병달 간사님께서 강의를 담당하시는데 간사님의 건강, 지혜, 시간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결신한 방한중국교포를 위하여

1990년 12월 3일부터 전도한 중국교포 중에 상당수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1) 결신한 중국교포 27명이 지금 제자중앙성

결교회에서 한 달 간 양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주셔서 그들에게 적합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훈련 받는 교포 중에 시험당하는 자가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중국으로 돌아간 교포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宣敎中國語研修를 위하여

제 3차 중국어 연수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초급반, 중급반이 1월 7일 부터 개강되었습니다. 등록한 회원들마다 열심을 품고 강의에 임하도록, 강사 선생님의 건강, 지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간사들을 위하여

올해는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1) 부서별 간사를 주축으로 맡겨진 선교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상임간사들이 아침마다 경건훈련, 중국어로 전도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선교를 위한 훈련이 잘 되고 성령충만한 가운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극동방송을 위하여

현재 중국에서는 극동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더욱 더 전파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수 있도록, 중국사람들이 극동방송을 많이 청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많이 늘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4기 “선교중국어연수”

개강: 1991. 4. 1 (8주간 16회 강의)

“중국어선교”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크신 사명입니다. 중국 선교의 일선에 나서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데 깊이 헌신하여야 합니다. 언어는 마음에 도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선교에 초점을 맞춘 언어훈련코스를 세번째로 개설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선교사역에 헌신하여 훈련받기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수내용

1. 초급A코스

- 중국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
- 교재: 초급중국어 I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재)과 오디오, 비디오 강의
-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00 - 9:00

2. 초급B코스

- A코스를 수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
- 교재: 초급중국어 II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재)과 오디오 강의
-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00 - 9:00

3. 중급A코스

- 중국어의 발음과 기본문형을 이미 학습한 수준
- 교재: 주교재/『離家出走』外(복음비디오영상 및 오디오교재)
부교재/『使徒信經, 主禱文 外』, 『經文背誦』, 『중국어찬송가』
-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00 - 9:00

4. 중급B코스

- 중급A코스를 수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
- 교재: 주교재/『佳佳的故事』外(복음비디오영상 및 오디오교재)
부교재/『經文背誦』, 『중국어찬송가』
-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00 - 9:00

※ 강의회수는 주 2회로 총 16회 실시되며 매주 과제가 부여됩니다.

※ 매회마다 강의시간을 다음과 같이 배분합니다.

7:00-7:30 중국어찬양(15분)출석점검(2분)사도신경(1분)요절암송(12분)

7:30-8:50 강의

8:50-9:00 중국어찬양(6분)합심기도(3분)주기도문(1분)강의끝

- 모집대상: 1. 중국선교에 소명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크리스찬 형제자매
2. 신학생 및 각 대학 크리스찬 중문학도
3. 중국어문선교회 전회원

●모집인원: 매반 각 20명씩

●연수장소: 중국어문선교회(사정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참가비: 6만원(교재대·테이프대는 별도) 접수/개강 당일

- 등록방법: 1.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전화로 신청접수(91. 3. 31까지)
2. 3월 31일 오후 6:00까지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입학원서를 작성. 중급A, B코스의 희망자는 간단한 필답고사 실시 후 반편성.
준비물- 반명합판 사진1매

●기 타: 본 연수과정을 이수한 분에게는 본선교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수여 및 상급 코스의 연수에 참가할 자격 부여.

●신청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2호) ☎ 594-8038

중국어문선교회

재정보고 (12월)

수 입	지 출
전 월 이 월 -890,850	임대료 300,000
후 원 금 1,933,000	사례비(7인) 1,100,000
현지사역자들	교재개발비 100,000
위한헌금 132,500	관리비(연료비외) 194,000
감사헌금 450,000	도서인쇄비 480,520
제2기선교강좌잔액 635,650	교육비(세미나) 10,000
중국교포위한헌금 100,000	철야헌금 10,000
	비 품 60,000
	우편발송료 71,000
	소모품비 18,030
	후 생 비 62,290
	통신비(전화, fax) 93,120
	선교여행예치금 150,000
	교포선교헌금 100,000
	여비교통비 4,000
	잡 비 33,130
	현지사역자들위한 헌금예치금 132,500
수 입 계 ₩ 2,360,300	지 출 계 ₩ 2,918,590
	차월이월 ₩ -558,290

구규식, 강정애, 고희정, 김구성(11, 12), 김근수, 김길자, 김승원, 김신봉, 김은숙(10, 11, 12), 김정하, 김영혜(8個月分), 김학주, 김원영(10, 11, 12), 김성곤, 김상환, 김순임, 김성순, 김의득, 김승심, 김한성, 노숙자, 노재은, 문정희, 문 원, 박성주, 박지화(11, 12), 박중표, 박혜영, 박지석, 박순희, 박정옥, 박애숙, 박동화, 빈미정, 부지민, 서 진, 서옥희, 신순남, 신홍식, 신성규, 석귀희, 안병국, 양혜선, 윤명자, 윤영자(11, 12), 이덕형, 이덕현, 이영구, 이지순, 이의선, 이영희, 이동화, 이영숙, 이은자, 임중명, 임순자, 이석형, 이승열(11, 12), 이정화, 전옥규, 정재순, 장경순, 장영숙, 한승희, 무명: 1명.

단체 : 동송교회, 신림교회, 영광교회, 평산교회, 중정교회(11, 12), 신림교회여전도회(김태숙, 문연순).

◎감사헌금 : 김신봉, 김은애(성림교회), 김상철(신림교회), 서 진, 박지석, 김포공항 믿음의형제들.

◎감사예배헌물 : 김순임(음료4상자), 안병국(떡2말), 이동화(글1상자), 한승희(크리스마스추리장식).

◎도서기증 : 김대경 선교사(성경·찬송 각1권), 전덕용(신앙서적 71권).

재정보고 (1월)

수 입	지 출
전 월 이 월 -558,290	사 레 비(5인) 800,000
후 원 금 999,350	도 서 인 쇄 비 105,200
현지사역자들	임 대 료 300,000
위한헌금 2,000	선 교 헌 금(12, 1) 20,000
	철야기도회헌금 20,000
	통신비(전화) 37,640
	강사로(세미나) 30,000
	후 생 비 53,000
	세미나 교육비 20,000
	세미나교재및티프 19,600
	비 품 40,000
	소 모 품 비 12,800
	우편발송료 67,610
	관리비(연료비외) 203,900
	여비교통비 5,700
	교 제 비(음료) 5,600
	잡 비 36,700
	현지사역자위한예치금 2,000
	선교여행예치금 150,000
수 입 계 ₩ 443,060	지 출 계 ₩ 1,929,750
	차기이월 ₩ -1,486,690

♡ 후원자상황 (1월) ♡

고희정, 구규식, 강정애, 김구성, 김승원, 김성순, 김근수, 김학주, 김순임, 김의득, 김한성, 김승심, 김현주, 김중기, 김준미, 남경화, 노숙자, 노재은, 문정희, 박성주, 박지석, 박중표, 박혜영, 박순남, 박순희, 박정옥, 박애숙, 박희정, 부지민, 빈미정, 서 진, 서기원, 신순남, 신홍식, 석귀희, 이지순, 이성철, 양혜선, 안병국, 윤명자, 이은자, 이영숙, 이승열, 이석형, 임순자, 임중명, 전옥규, 정재순, 장영숙, 한승희, 황대화, 허정희.

무명: 2명.

단체: 신림교회, 평산교회, 방송대성경반.

◎도서기증:

전도책자(영·중성경) 및 티프다수: 김동오

성경강해 23권: 방지일 목사

◎철야기도회간식: 김상환, 허정희.

특별기금적립현황 (12, 1월)

명 목	이 월	수 입	지 출	잔 액
선교여행예치금	890,000	300,000	200,000	990,000
현지사역자위한헌금	144,160	134,500	100,000	178,660
출 판 헌 금	1,201,000			1,201,000
사무실마련비	-1,490,000			-1,490,000
레이저프린터기대금	1,000,000		1,000,000	-1,800,000
중국교포선교헌금	125,000	400,000	135,000	390,000

◎중국교포선교헌금 :

개인: 김용배.

단체: 장안제일교회

(이은자, 박금선, 조인숙, 정재순).

◎ 각부 기도제목 ◎

< 교육부 >

1. 3월에 시작할 4차 중국어 연수를 위하여
 - 1) 각 대학과 신학교에 홍보가 잘 되어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 2) 선교회 회원들이 연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 3) 필요한 공간과 강의 교재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 4) 훌륭한 강사님을 계속 모실 수 있도록
2. 교재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3. 교육부에서 수고하는 남경화, 부지민 간사, 기타 부원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 출판부 >

1. 함께 일할 동역자를 보내 주시도록 (취재기자, 편집기자, 교정기자)
2. 선교 회지가 중국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지가 되도록

< 번역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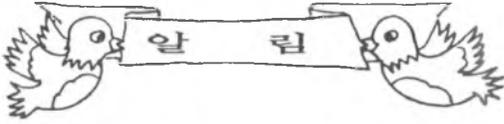
1. 번역부 모임 시간, 장소를 정함에 있어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주시도록
2. 한선옥, 이영순 자매가 취직이 되어 당분간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간절히 하여 주사 같이 일할 수 있도록
3. 강갑숙 자매님을 아들을 출산하였다. 자매님과 아이가 건강하도록 기도하며, 강자매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4. 충성하는 중국어문선교회가 되고, 각 부서의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 연구부 >

1. 연구부에서 일할 헌신된 일꾼을 보내 주시도록
2. 연구부의 일이 체계있게 분담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3. 번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매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도록
3. 연구부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 회원동정 □

1. 이동화 총무간사가 총신대학원에 합격하셨습니다. 현재 양지캠퍼스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 1월 21일- 23일까지 남서울교회에서 주최하는 자비량 선교세미나에 김용배 간사, 운명자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3. 원은선 회원이 중화민국 台東에 90년 12월 11일 출국했다가 12월 20일에 돌아왔습니다.
4. 교육부 협력간사인 부지민 자매가 90년 12월 25일에 대만에 갔다가 91년 1월 17일 다시 돌아와서 선교중국어 연수교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5. 석귀희 간사가 1월3일부터 1월 12까지 대만 선교여행을 무사히 다녀 왔습니다.
6.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부산 에페소선교회 주최한 "모슬렘과 공산권 선교 세미나"에 김용배, 김한성 간사가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7. 박성주 대표간사가 1월 23일 부터 2월 6일 까지 방송대 어학연수단을 인솔하고 중화민국 문화대학에 무사히 다녀오셨습니다.
8. 대만에서 어학을 공부하던 김영석 회원이 2월 11일에 잠시 귀국 했습니다.
9. 안지훈 회원이 방학기간 동안 어학을 공부하기 위해 90년 12월 30일 대만으로 출국했습니다.



편집후기

1. 선교중국어연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수(제4차)는 4월 1일에 개강합니다.
2. 본 선교회에서 출판사등록(愛華)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愛華」를 통해 출판할 중국어 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3. 1월 29일 정기세미나에는 전문인 협력기구(Hope)의 전 총무이었던 신현확 씨를 강사로 모시고 「중국선교에 있어서 전문인 선교의 가능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4. 2월 9일 부터 시작된 지도자 훈련과정(L.T.C)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월 6일까지(매주 토요일 2:00-6:00)계속 됩니다. 강사는 본선교회 회원으로 있는 금병달(CCC간사)회원과 최경희 CCC간사이며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5. 매월 셋째주 화요일은 정기철야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6.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은 중국어문선교회사무실에서 정기세미나가 있습니다.
7. 3월부터 낮 중국어성경반이 개강되고, 정오기도회도 시작됩니다.
 - 성경공부 내용: 요한복음 8장부터
 - 모 임 일: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3월: 4일, 18일, 4월: 1일, 15일, 29일)
 - 모임시간: 중국어성경반 10시30분~12시 정오기도회 12시~1시
8. 본 선교회에서 번역한 중국선교의 지침서인 『중국선교핸드북』이 출판사(두란노서원) 사장 상 4월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21:2)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제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으셔서 저에게 대만 선교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김없이 해가 바뀌었고, 세계는 격변하고 있으며 전쟁의 소문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 91년 들어 첫번째 회지를 발간하게 된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호에는 “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林治平)을 실었고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실을 예정입니다.

대륙성도의간증은 자료 부족으로 88년에 나온 “중국과 교회”에서 발췌하여 번역을 했는데(번역부) 다음호부터는 최근 자료를 구해 간증을 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본 선교회가 하고있는 일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빛과 소금』(두란노서원) 1월호에 실렸던 본 선교회를 소개한 “우리는 이렇게 일한다”(이동화)을 옮겨 실었습니다.

회지를 타자하느라고 수고한 김준미, 남경화 자매에게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교정을 봐주신 박혜영 회원, 이인수 자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자원해서 동역하길 기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더욱 성숙한 회지가 되어서 중국선교의 길잡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기도,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기도와 물질로 본 선교회를 후원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新年快樂” (석)

